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 이상엽)는 대구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 등으로 지역내 **중소기업** 및 **농어촌 가구** 등이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주민수** 및 **취업자수**가 **지속 증가**
 - 특히 **남성, 고졸 이하, 청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 농림어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운데, 대체로 **직무수준**이 **낮았음**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중소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지역 청년층 인력공급**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여건** 및 **고용안정성**은 **저하**된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감소**로 인한 **인력난** 심화에 **대처**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① 광·제조업, 농림어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 ② 연구개발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 방안 마련** ③ **종합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이형구

Tel. (053)429-0256 Fax. (053)429-0219 E-mail. daequer@bok.or.kr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대구경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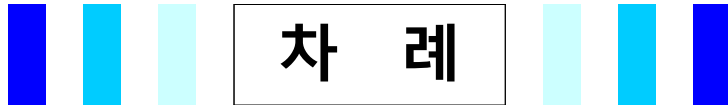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시사점

2021. 7.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작성자 : 경제조사팀 이형구 과장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주민 현황	2
III.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특징	5
1.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지속 증가	5
2. 남성, 고졸 이하, 청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	6
3. 소규모의 광·제조업, 농림어업에 주로 종사	8
4. 고용안정성이 낮아진 가운데 임금도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	12
5.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	14
6. 재외동포와 유학생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 비중은 감소	15
IV. 평가 및 시사점	19
1. 평가	19
2. 시사점	22
<붙임1>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27

< 참고 문헌 >

【 요약 】

I | 검토 배경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로 생산가능인구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장년층(15~49세) 및 고졸이하 취업자 비중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지역내 **중소기업** 및 **농어촌 가구** 등이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수**는 2019년 현재 **15.8만명**(대구 5.3만명, 경북 10.5만명)으로 대구경북 전체 인구 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을 중심으로 2015~19년중 **연평균 8.5% 증가**
 - **외국인 취업자 수도** 2013년 4.2만명에서 2019년 5.5만명으로 **증가**
 -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 등으로 생산인력 부족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 및 농림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유인**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내 산업생산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
- ⇒ 본고는 대구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주민 현황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15.8만명**으로 2015년(11.4만명) 대비 **연평균 8.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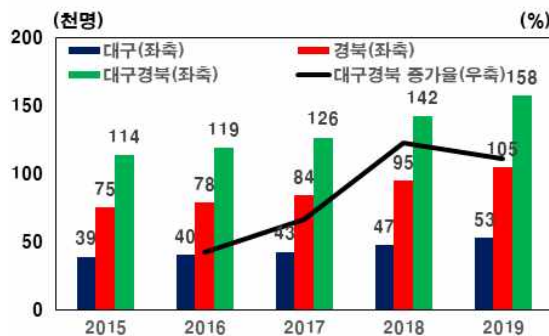
-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전국(6.7%) 및 비수도권(7.9%)보다는 높지만,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수 비중은 3.1%로 전국 평균(4.3%)보다 낮으며, 특히 대구(2.2%)는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음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15.8만명*(대구 5.3만명, 경북 10.5만명)으로 2015년(11.4만명) 대비 38.5%(기간중 연평균 8.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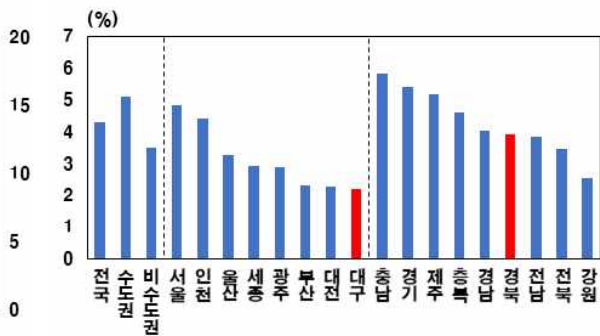
* 한국국적 미취득 12.2만명+한국국적 취득 1.2만명+외국인주민자녀 2.4만명

- 대구의 외국인 주민수는 전체 특별·광역시(8개) 중 네 번째로 많고 경북 외국인 주민수는 전체 광역도(9개)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준
-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수 비중은 3.1%로 전국 평균(4.3%)보다 낮으며, 대구가 2.2%로 전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고 경북(3.9%)은 광역도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주민수



지역별 외국인 주민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9)

- 2019년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는 달서구(1.6만명), 달성군(1.1만명), 북구(0.9만명) 등에, 경북은 경주(2.0만명), 경산(1.8만명), 포항(1.2만명), 구미(1.0만명) 등에 많이 거주

III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특징

-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는 5.5만명으로 2013년 (4.2만명) 대비 연평균 4.5% 증가
 - * 대구경북지역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남성(75%), 고졸 이하(68.8%), 청장년층(89.2%)이 대부분을 차지
- 2013~19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증가폭(1.3만명)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0.6만명)을 상회하였으며 동 기간 경제활동인구수 증가(5.6만명)의 26.8%가 외국인(1.5만명)이 차지
-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 농림어업 부문의 중소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운데, 대체로 직무수준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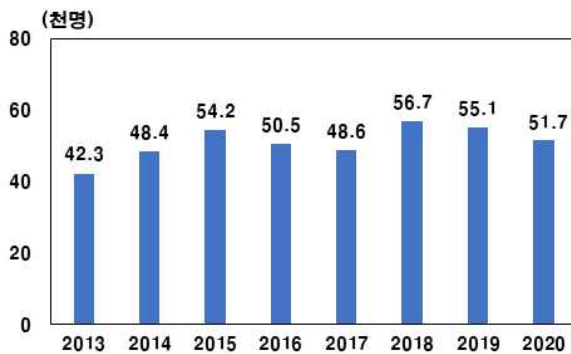
- ◆ 실업률,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아진** 가운데 **임금도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
- ◆ **국적별**로는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와 **유학생(D-2, D-4~1,7)**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E-1~E-7, 예: 연구개발인력, 영어강사 등)** 비중은 **감소**

1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지속 증가

* 자세한 통계수치 및 현황은 p.27, <붙임1>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참조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는 5.5만명으로 2013년(4.2만명) 대비 **연평균 4.5% 증가**
- 2013~19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증가폭**(1.3만명)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0.6만명)을 **상회**하였으며 동 기간 경제활동인구수 증가(5.6만명)의 26.8%가 외국인(1.5만명)이 차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대구경북지역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추이

		(만명)		
		2013	2019	차이
15세이상인구	전체	433.6	442.2	8.7
	외국인	6.2	8.4	2.3
경제활동인구	전체	272.9	278.5	5.6
	외국인	4.3	5.8	1.5
취업자	전체	266.2	266.8	0.6
	외국인	4.2	5.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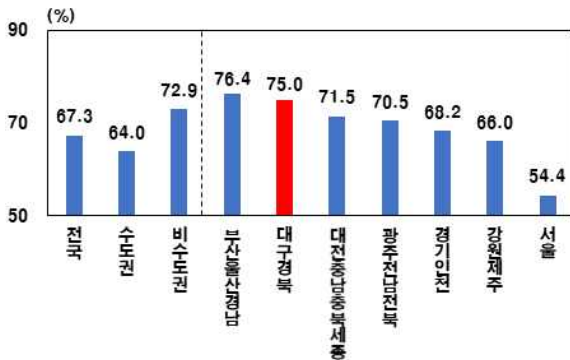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구경북지역의 **총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2019년 현재 2.1%로 2013년(1.6%)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전국(3.2%) 및 비수도권(2.4%)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2 남성, 고졸 이하, 청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은 75%로서, **전국에서** 부산·울산·경남(7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외국인 취업자 중 고졸 이하 비중이 68.8%에 달하는 등 **저·중학력 취업자가 다수**이나, 대졸 이상 비중도 과거에 비해 큰 폭 상승 (2013년 22.7% → 2019년 31.2%)

남성 외국인 취업자의 비율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비중¹⁾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초졸이하	7.9	(-0.4)	7.1	(0.1)	10.3	(-1.6)
중졸	16.8	(-5.6)	17.2	(-6.1)	15.7	(-4.0)
고졸	44.1	(-2.6)	46.3	(-2.2)	37.4	(-4.0)
대졸이상	31.2	(8.5)	29.4	(8.2)	36.6	(9.6)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39.1%, 20대 이하 33.1%, 40대 16.9%, 50대 이상 10.8% 순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는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15~39세 연령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장년층(15~49세) 비중이 8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3 소규모의 광·제조업, 농림어업에 주로 종사

-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62.0%), **농림어업**(12.1%), 도소매·음식·숙박업(1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0.7%) 등에 **주로 종사**
 - 과거에 비해 광·제조업의 비중(2013~14년 평균 70.8% → 2019년 62.0%)이 줄어든 반면 **농림어업***(6.2% → 12.1%)은 약 두 배 늘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7.5% → 11.6%) 비중도 크게 확대

*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파종·수확 시기에 단기간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외국인 취업자의 대구경북지역 농림어업 종사 비중은 더욱 높을 가능성

—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 외국인 취업자의 광·제조업(62.0%) 종사 비중은 전국(46.3%) 및 비수도권(56.7%)을 상회하고 농림어업(12.1%) 비중은 전국(6.0%)의 두 배 수준이며 비수도권(13.2%)을 소폭 하회

○ 남성의 경우 광·제조업(68.2%) 및 농림어업(14.2%)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31.2%)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2%)에 절반 이상이 종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비중(2019년)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비중(2019년)

(% , %p)				(%)			
	2013~14	2019	차이		전국	비수도권	대구경북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농림어업	6.2	12.1	5.9	농림어업	6.0	13.2	12.1
광·제조업	70.8	62.0	-8.8	광·제조업	46.3	56.7	62.0
건설업	3.5	3.1	-0.4	건설업	11.0	4.5	3.1
도소매·음식·숙박업	7.5	11.6	4.1	도소매·음식·숙박업	19.1	12.8	1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	0.6	0.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6	0.4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2.0	10.7	-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6.0	12.4	10.7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숙련 일자리*에 주로 종사 하며 상당한 실무 지식·기술 또는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3~4수준 일자리(고숙련 일자리) 종사비중은 11.5% 수준에 불과

*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또는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 전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저숙련 일자리 종사 비중(88.5%)은 대전충남충북세종(8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무수준별¹⁾ 종사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무수준별¹⁾ 종사비중(2019년)

(%)					(%)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62.3	26.2	6.0	5.5	전체	62.3	26.2	6.0	5.5
남성	61.7	29.9	5.0	3.5	농림어업	79.1	18.8	1.2	0.8
여성	64.4	14.2	9.3	12.2	광·제조업	62.2	33.3	4.0	0.5
초졸이하	88.2	10.6	1.2	0.0	건설업	66.7	23.4	6.0	3.9
중졸	71.1	27.0	1.9	0.0	도소매·음식·숙박업	79.4	9.1	3.7	7.8
고졸	68.6	27.1	2.4	1.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6.4	12.3	22.9	18.4
대졸이상	41.5	28.7	14.6	15.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4.7	8.5	26.0	40.7

주: 1) 1수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2수준: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3수준: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4수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71.8%는 **중사업체 규모 5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자 규모별 종사비중(2019년)

(%)

	4인 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합
전체	15.7	16.1	26.3	13.7	25.9	2.3	100.0
남성	11.8	14.6	28.1	15.6	27.8	2.2	100.0
여성	27.2	20.7	21.0	7.8	20.3	2.9	100.0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4 고용안정성이 낮아진 가운데 임금도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

-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지역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취업자수가 감소**(2019년 5.5만명 → 2020년 5.2만명)하면서 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률이 8.0%로 상승**
 - **서울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며 2013년 실업률(1.0%) 대비 상승폭도 가장 큰 수준

외국인 근로자 실업률

(%, %p)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전북	강원 제주
2013년(A)	4.0	5.0	2.4	8.4	2.9	2.0	3.9	1.0	2.1	1.9
2019년	5.5	6.4	4.0	9.4	5.0	4.1	3.9	4.5	3.4	4.4
2020년(B)	7.6	8.7	5.6	12.0	7.2	4.9	5.3	8.0	5.4	4.2
차이(B-A)	3.6	3.7	3.2	3.6	4.3	2.9	1.4	7.0	3.3	2.3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를 보면, **200~300만원**이 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00~200만원 29.1%, 300만원 이상 11.6% 등의 순
 - 2013~14년중 임금 분포와 비교하면, 100~200만원 비중(56.4% → 29.1%)이 감소한 반면 200~300만원(33.7% → 54.1%)과 300만원 이상(2.6% → 11.6%)의 비중이 크게 확대

○ 다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300만원 이상 임금 비율** (11.6%)은 **전국**(16.3%)과 **비수도권**(13.0%)을 **하회**하였으며

지난 2013~14년 대비 대구경북지역의 **200만원 이상 임금 비율 증가폭** (29.4%p)도 **전국**(37.1%p)과 **비수도권**(31.4%p)을 **하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2019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지역별·월평균 임금 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2019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지역별·월평균 임금 비중			
(%, %p)				(%, %p)			
	2013~14	2019	차이		전국	비수도권	대구경북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	7.3	5.2	-2.1	100만원 미만	5.1	4.8	5.2
100~200만원 미만	56.4	29.1	-27.3	100~200만원 미만	(0.2)	(-1.7)	(-2.1)
200~300만원 미만	33.7	54.1	20.4	200~300만원 미만	27.2	30.0	29.1
300만원 이상	2.6	11.6	9.0	300만원 이상	(-37.3)	(-29.7)	(-27.3)
				200~300만원 미만	51.3	52.3	54.1
				300만원 이상	(26.3)	(22.9)	(20.4)
				300만원 이상	16.3	13.0	11.6
					(10.8)	(8.5)	(9.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은 상용직 69.8%, 임시일용 근로자가 26.6%, 비임금 근로자가 3.6% 등의 순

○ 지난 2013~14년에 비해 **상용직 비중**(77.8% → 69.8%)이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17.5% → 26.6%)이 **확대**

—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의 상용직 비율이 85.6%에 달한 반면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임시일용직 비율이 각각 76.7%와 63.5%

○ 성별로는, 남성 상용직 비중(76.1%)이 여성(50.8%)보다 높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2019년)			
(%, %p)				(%)			
	2013~14	2019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임금	95.3	96.4	1.1	임금	96.4	98.3	90.6
(상용)	77.8	69.8	-8.0	(상용)	69.8	76.1	50.8
(임시일용)	17.5	26.6	9.1	(임시일용)	26.6	22.2	39.8
비임금	4.7	3.6	-1.1	비임금	3.6	1.7	9.4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5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20.1%), **한국계 중국인**(15.8%), **인도네시아**(8.3%), **우즈베키스탄**(7.5%)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
 - 지난 2013~14년과 비교하면 중국(2013~14년 7.3% → 2019년 3.8%)과 인도네시아(13.0% → 8.3%) 비중이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 네팔 등 기타 아시아국가(22.0% → 25.6%)와 유럽(0.9% → 5.7%) 출신 근로자 비중은 상승
- 산업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은 48.3%가 광·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농림어업(27.1%) 및 도소매·음식·숙박업(23.4%)에도 약 절반 수준이 종사하였으나, 한국계 중국인은 60.2%가 광·제조업에 근무하고 농림어업 비중은 낮은 편

6 재외동포와 유학생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 비중은 감소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은 **비전문취업**(E-9) 39.5%, **재외동포**(F-4) 16.7%, **방문취업**(H-2) 10.5% 순
 - 지난 2013~14년에 비해 비전문취업(E-9)의 비중(57.5% → 39.5%)이 줄어든 반면, **재외동포**(F-4)(6.2% → 16.7%)와 **유학생**(D-2, D-4~1,7)(1.5% → 5.4%) 비중은 **크게 증가**
 - 반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E-1~E-7)의 **비중** (7.3% → 5.4%)은 지난 2013~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2019년중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이 회화지도(E-2), 예술홍행(E-6) 등 서비스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종사인력의 **비중은 35.9%에 불과**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도입직종은 85개 직종(471개 세부직업)으로 구성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2019년)

(% , %p)

	비전문 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합
전체	39.5 (-18.0)	10.5 (0.5)	5.4 (-1.9)	5.4 (3.9)	16.7 (10.5)	4.2 (-0.1)	9.8 (0.9)	8.6 (4.2)	100.0
남성	50.2 (-18.2)	10.3 (0.3)	4.2 (0.0)	3.2 (1.9)	16.0 (9.7)	2.6 (-1.6)	2.9 (1.2)	10.6 (6.7)	100.0
여성	7.2 (-18.7)	10.9 (1.2)	8.9 (-7.1)	12.0 (10.0)	18.8 (12.8)	8.8 (4.2)	30.7 (0.8)	2.6 (-3.2)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IV | 평가 및 시사점

1 | 평가

◆ **저학력·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중소기업체들의 **내국인 근로자 부족 상황***(구인난) **해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5~299인 이하)의 인력부족률(전산업 1.6%, 광·제조업 1.8%)은 대기업(300인 이상)의 인력부족률(전산업 1.1%, 광·제조업 0.5%)을 크게 상회 (2020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2020.10월)

○ 반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E-1~E-7)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종사인력**이 **전체 전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9%**에 불과

◆ 대구경북지역의 고령화 및 지방소멸위험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의 **청년층 인력 공급**에 **기여**

◆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 수준**이 전국에 비해 **낮고**,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악화**

가. 저학력·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에 일부 기여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내국인 근로자 부족 상황***(구인난) **해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5~299인 이하)의 **인력부족률**#(전산업 1.6%, 광·제조업 1.8%)은 **대기업**(300인 이상)의 **인력부족률**(전산업 1.1%, 광·제조업 0.5%)을 **크게 상회**(2020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2020.10월)

인력부족률: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부족인원: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들은 주로 **광·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대체로 **직무수준이 낮고 고졸 이하 비중이 높았음**
- 반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E-1~E-7)의 **비중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종사인력**이 **전체 전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9%에 불과**
- 특히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전문인력(E-1~E-7) 비중(5.4%)은 비수도권(5.8%)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문인력에서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종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35.9%)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음**

나. 농어촌 지역 청년층 인력공급에 기여

- 대구경북지역의 고령화 및 지방소멸위험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의 **청년층 인력 공급**에 **기여**

○ 대구경북지역 산업별·연령별 외국인 취업자 비중(2019년 기준)을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0대 이하가 83.2%를 차지하여 **광·제조업(73.6%), 도소매·음식·숙박업(66.4%)** 등을 크게 상회

○ 한편 파종, 수확 등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가장 심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취업자의 일시적 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고가 분석한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동 근로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취업자의 대구경북지역 농림어업 실제 종사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

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여건 및 고용안정성은 저하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 수준**이 전국에 비해 **낮고**,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악화**

○ 한편 본고가 분석한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

* 2020년중 전국 불법체류자는 총 39만 2196명으로 2016년(20만 8971명)에 비해 87.7% 증가

2 시사점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인력난**에 **대처**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

* 2018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연구개발비 및 인력수의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5.1% 및 6.5%에 불과하였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p>1.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코로나19 기간중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가격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 심화에 대응 ❖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 산업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지원, 직업훈련 기회 제공
<p>2. 연구개발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연구, 개발 등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대학과의 연계 및 지역 내 정책 장려도 고려 ❖ 입국 후 성실히 근무하여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허용 규모도 확대 ❖ 유학생 중 성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졸업 후 전공 및 전문성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
<p>3. 종합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 노동력과 지역사회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 추진 ❖ 외국인 거주자와의 상호 포용적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한편, 외국인력의 적응 및 사회통합을 지원

I 검토 배경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로 생산가능인구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장년층(15~49세) 및 고졸이하 취업자 비중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지역내 **중소기업** 및 **농어촌 가구** 등이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구경북지역의 청장년층 취업자 비중은 2010년 64.1%에서 2020년 51.4%로, 고졸이하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중 66.4%에서 55.0%로 하락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고령인구비율(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8%로 전국(15.1%)에 비해 크게 높고 지방소멸위험*도 점증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대비 20~39세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며 대구경북지역 전체 31개 시군구중 18곳의 지방소멸위험지수(2019년 기준)가 0.5 이하로 지역소멸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10년간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연령층 순유출자 중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87.3%(2011~20년 평균)로 매우 높은 수준*

* 이는 2011~20년중 인구 순유출 지역 가운데 광주전남전북(13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한편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수**는 2019년 현재 **15.8만명**(대구 5.3만명, 경북 10.5만명)으로 대구경북 전체 인구 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을 중심으로 2015~19년중 **연평균 8.5% 증가**

- **외국인 취업자 수도** 2013년 4.2만명에서 2019년 5.5만명으로 **증가**

-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 등으로 생산인력 부족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 및 농림어업 부문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유인**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내 산업생산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

⇒ 본고는 대구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주민 현황*

*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초과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를 합산하여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15.8만명으로 2015년(11.4만명) 대비 연평균 8.5% 증가

○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전국(6.7%) 및 비수도권(7.9%)보다는 높지만,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수 비중은 3.1%로 전국 평균(4.3%)보다 낮으며, 특히 대구(2.2%)는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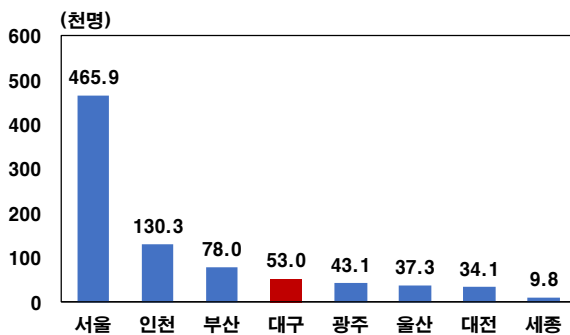
◆ 대구는 달서구(1.6만명), 달성군(1.1만명), 북구(0.9만명) 등에, 경북은 경주(2.0만명), 경산(1.8만명), 포항(1.2만명), 구미(1.0만명) 등에 많이 거주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15.8만명*(대구 5.3만명, 경북 10.5만명)으로 2015년(11.4만명) 대비 38.5%(기간중 연평균 8.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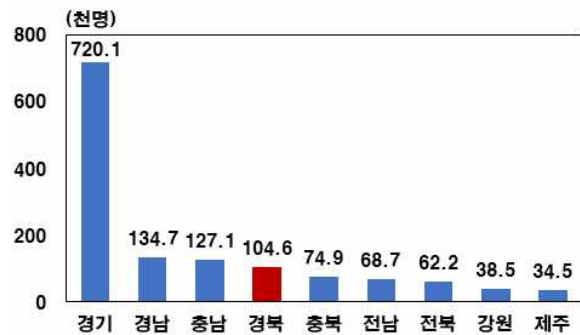
* 한국국적 미취득 12.2만명+한국국적 취득 1.2만명+외국인주민자녀 2.4만명

○ 대구의 외국인 주민수는 전체 특별·광역시(8개) 중 네 번째로 많고 경북 외국인 주민수는 전체 광역도(9개)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준

특별·광역시 외국인 주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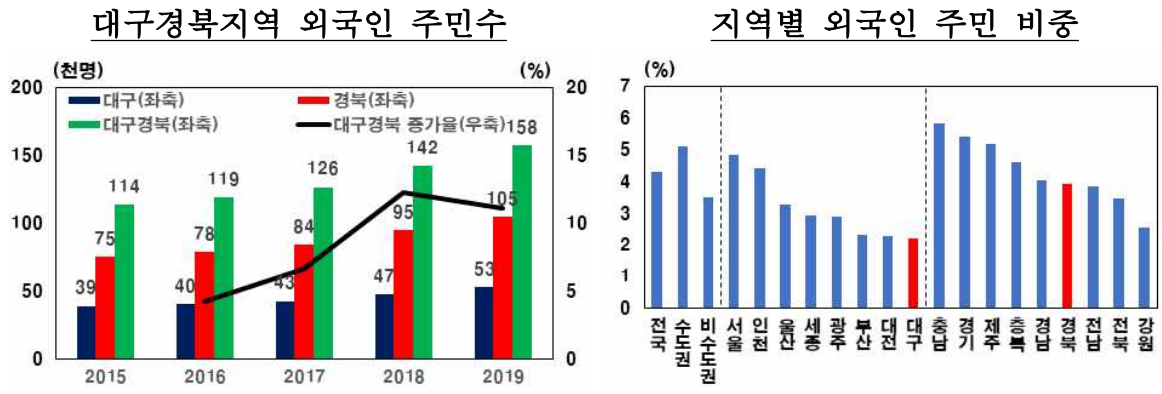


광역도 외국인 주민수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9)

-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수 비중은 3.1%로 전국 평균(4.3%)보다 낮으며, 대구가 2.2%로 전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고 경북(3.9%)은 광역도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인구총조사

-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주민수 증가율(2015~19년중 연평균 8.5%)은 전국(연평균 6.7%) 및 비수도권(연평균 7.9%)을 상회

— 유학생(연평균 증가율 24.1%)과 외국국적동포(연평균 9.3%)를 중심으로 증가

□ 2019년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는 달서구(1.6만명), 달성군(1.1만명), 북구(0.9만명) 등에, 경북은 경주(2.0만명), 경산(1.8만명), 포항(1.2만명), 구미(1.0만명) 등에 많이 거주

-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수 비중은 대구는 달성군(4.2%), 달서구(2.9%) 등이, 경북은 고령(8.8%), 경주(7.6%), 성주(6.8%), 경산(6.0%) 등이 높았음

- 한편 외국인 주민수가 2015년 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으로 대구는 달성군(57.0%), 경북은 경산(77.5%), 울릉(64.4%), 영덕(57.0%), 영주(54.5%) 순

대구경북지역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추이¹⁾

(명, %)

구 분	2015(A)	2016	2017	2018	2019(B)	증감	
						(B-A)	(B-A)/A
대구광역시	38,899 (1.6)	40,251 (1.6)	42,506 (1.7)	47,017 (1.9)	53,023 (2.2)	14,124	36.3
중구	1,105 (1.4)	1,072 (1.4)	1,127 (1.5)	1,152 (1.5)	1,222 (1.6)	117	10.6
동구	3,218 (0.9)	3,244 (0.9)	3,567 (1.0)	3,934 (1.1)	4,261 (1.3)	1,043	32.4
서구	3,880 (1.9)	4,087 (2.1)	4,251 (2.2)	4,496 (2.4)	4,867 (2.8)	987	25.4
남구	1,774 (1.1)	1,832 (1.2)	1,826 (1.2)	2,223 (1.5)	2,560 (1.7)	786	44.3
북구	7,020 (1.6)	7,155 (1.6)	7,645 (1.7)	8,350 (1.9)	9,291 (2.1)	2,271	32.4
수성구	2,701 (0.6)	2,761 (0.6)	2,745 (0.6)	3,214 (0.8)	3,536 (0.9)	835	30.9
달서구	12,308 (2.0)	12,422 (2.1)	12,796 (2.2)	14,038 (2.4)	16,466 (2.9)	4,158	33.8
달성군	6,893 (3.6)	7,678 (3.6)	8,549 (3.6)	9,610 (3.8)	10,820 (4.2)	3,927	57.0
경상북도	74,919 (2.8)	78,339 (2.9)	83,898 (3.1)	94,873 (3.5)	104,596 (3.9)	29,677	39.6
포항시	8,238 (1.6)	8,384 (1.6)	9,014 (1.8)	10,482 (2.1)	11,639 (2.3)	3,401	41.3
경주시	13,004 (5.0)	13,941 (5.3)	15,368 (5.9)	17,867 (6.8)	19,958 (7.6)	6,954	53.5
김천시	3,119 (2.3)	3,256 (2.3)	3,671 (2.6)	4,204 (3.0)	4,579 (3.3)	1,460	46.8
안동시	2,497 (1.5)	2,492 (1.5)	2,798 (1.7)	3,078 (1.9)	3,380 (2.1)	883	35.4
구미시	9,156 (2.2)	9,030 (2.1)	9,129 (2.2)	9,374 (2.2)	9,880 (2.4)	724	7.9
영주시	1,641 (1.5)	1,786 (1.6)	2,088 (1.9)	2,368 (2.2)	2,535 (2.4)	894	54.5
영천시	4,206 (4.3)	4,420 (4.5)	4,773 (4.9)	5,368 (5.4)	5,712 (5.7)	1,506	35.8
상주시	1,994 (2.0)	2,077 (2.1)	2,229 (2.3)	2,462 (2.5)	2,710 (2.8)	716	35.9
문경시	1,418 (2.0)	1,528 (2.2)	1,548 (2.2)	1,699 (2.5)	1,865 (2.7)	447	31.5
경산시	9,879 (3.5)	10,918 (3.9)	12,228 (4.3)	14,798 (5.2)	17,540 (6.0)	7,661	77.5
군위군	879 (4.0)	887 (4.0)	909 (4.1)	940 (4.2)	1,001 (4.5)	122	13.9
의성군	1,301 (2.5)	1,324 (2.6)	1,225 (2.4)	1,290 (2.6)	1,443 (2.9)	142	10.9
청송군	552 (2.2)	559 (2.3)	557 (2.3)	599 (2.5)	644 (2.7)	92	16.7
영양군	446 (2.7)	429 (2.6)	484 (2.9)	539 (3.3)	565 (3.5)	119	26.7
영덕군	1,145 (3.1)	1,382 (3.8)	1,408 (3.9)	1,666 (4.6)	1,798 (5.0)	653	57.0
청도군	1,355 (3.3)	1,470 (3.5)	1,528 (3.7)	1,777 (4.3)	1,941 (4.7)	586	43.2
고령군	2,531 (7.4)	2,526 (7.6)	2,536 (7.7)	2,653 (8.1)	2,841 (8.8)	310	12.2
성주군	2,226 (5.4)	2,328 (5.6)	2,406 (5.8)	2,588 (6.3)	2,810 (6.8)	584	26.2
칠곡군	5,751 (4.7)	5,942 (4.8)	5,883 (4.8)	6,418 (5.3)	6,583 (5.6)	832	14.5
예천군	1,109 (2.6)	1,076 (2.4)	1,244 (2.7)	1,355 (2.7)	1,497 (2.8)	388	35.0
봉화군	639 (2.0)	666 (2.1)	723 (2.3)	825 (2.7)	880 (2.9)	241	37.7
울진군	1,645 (3.3)	1,699 (3.5)	1,908 (3.9)	2,231 (4.6)	2,486 (5.2)	841	51.1
울릉군	188 (2.1)	219 (2.6)	241 (2.8)	292 (3.3)	309 (3.6)	121	64.4

주: 1) 괄호 안은 전체 주민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인구총조사

III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특징*

* 통계청은 매년 5월 15일 현재 만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 기준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귀화허가자가 조사 대상으로 2017년에서야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상기 행정안전부 자료와 달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분석

-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는 5.5만명으로 2013년(4.2만명) 대비 연평균 4.5% 증가
 - 2013~19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증가폭(1.3만명)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0.6만명)을 상회하였으며 동 기간 경제활동인구수 증가(5.6만명)의 26.8%가 외국인(1.5만명)이 차지
- ◆ 대구경북지역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남성(75%), 고졸 이하(68.8%), 청장년층(89.2%)이 대부분을 차지
-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 농림어업 부문의 중소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운데, 대체로 직무수준이 낮음
- ◆ 실업률,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아진 가운데 임금도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
- ◆ 국적별로는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와 유학생(D-2, D-4~1,7)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E-1~E-7, 예: 연구개발인력, 영어강사 등)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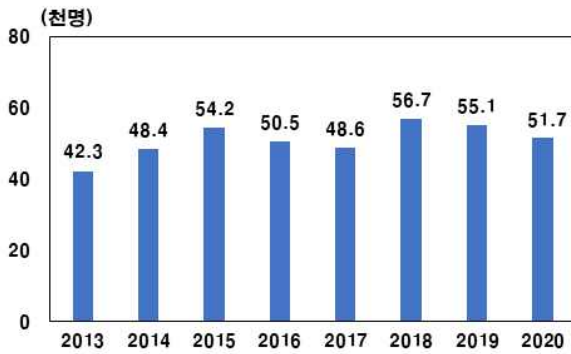
1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지속 증가

* 자세한 통계수치 및 현황은 p.27, <붙임1>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참조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는 5.5만명으로 2013년(4.2만명) 대비 연평균 4.5% 증가
 - 2013~19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증가폭(1.3만명)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0.6만명)을 상회하였으며 동 기간 경제활동인구수 증가(5.6만명)의 26.8%가 외국인(1.5만명)이 차지

— 지역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 대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 비율은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



대구경북지역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추이

		(만명)		
		2013	2019	차이
15세이상인구	전체	433.6	442.2	8.7
	외국인	6.2	8.4	2.3
경제활동인구	전체	272.9	278.5	5.6
	외국인	4.3	5.8	1.5
취업자	전체	266.2	266.8	0.6
	외국인	4.2	5.5	1.3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다만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취업자수가 전국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서 2013년(6.3%)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음
-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총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2019년 현재 2.1%로 2013년(1.6%)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전국(3.2%) 및 비수도권(2.4%)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지역별 총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

	(% , %p)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전북	강원 제주
2013년	2.6	3.3	1.9	2.9	3.6	2.2	2.3	1.6	1.5	1.3
2019년	3.2	3.9	2.4	3.3	4.4	2.2	3.2	2.1	2.0	2.0
차이	0.6	0.6	0.5	0.4	0.8	0.0	0.9	0.5	0.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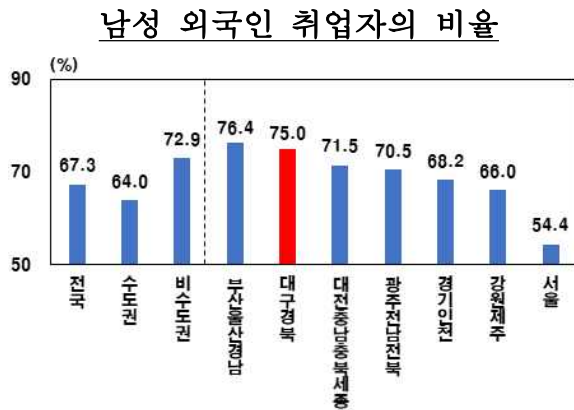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 남성, 고졸 이하, 청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은 75%로서, 전국에서 부산·울산·경남(7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이는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들이 광·제조업 및 농림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데 기인

□ 외국인 취업자 중 고졸 이하 비중이 68.8%에 달하는 등 저·중학력 취업자가 다수이나, 대졸 이상 비중도 과거에 비해 큰 폭 상승 (2013년 22.7% → 2019년 31.2%)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비중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초졸이하	7.9 (-0.4)	7.1 (0.1)	10.3 (-1.6)
중졸	16.8 (-5.6)	17.2 (-6.1)	15.7 (-4.0)
고졸	44.1 (-2.6)	46.3 (-2.2)	37.4 (-4.0)
대졸이상	31.2 (8.5)	29.4 (8.2)	36.6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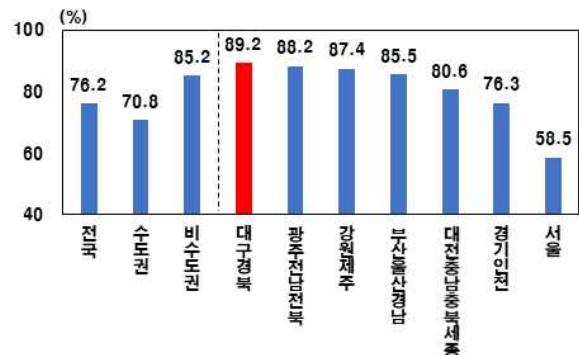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39.1%, 20대 이하 33.1%, 40대 16.9%, 50대 이상 10.8% 순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는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15~39세 연령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장년층(15~49세) 비중이 8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대구경북지역 취업자 연령별 분포(2019년) 외국인 취업자중 청장년층 비중(2019년)

	전체(A)	외국인(B)	B-A
전체	100.0	100.0	
15~29세	12.8	33.1	20.3
30~39세	17.0	39.1	22.1
40~49세	23.3	16.9	-6.4
50~59세	25.2	7.6	-17.6
60세 이상	21.7	3.2	-18.5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3 소규모의 광·제조업, 농림어업에 주로 종사

□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62.0%), **농림어업**(12.1%), **도소매·음식·숙박업**(1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0.7%) 등에 **주로 종사**

○ 과거에 비해 광·제조업의 비중(2013~14년 평균 70.8% → 2019년 62.0%)이 줄어든 반면 **농림어업***(6.2% → 12.1%)은 약 두 배 늘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7.5% → 11.6%) **비중도 크게 확대**

*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파종·수확 시기에 단기간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외국인 취업자의 대구경북지역 농림어업 종사 비중은 더욱 높을 가능성

—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 외국인 취업자의 광·제조업(62.0%) 종사 비중은 전국(46.3%) 및 비수도권(56.7%)을 상회하고 농림어업(12.1%) 비중은 전국(6.0%)의 두 배 수준이며 비수도권*(13.2%)을 소폭 하회

* 광주전남전북(22.8%) 및 강원제주(28.6%) 지역의 높은 농림어업 비중에 기인

○ 남성의 경우 광·제조업(68.2%) 및 농림어업(14.2%)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31.2%)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2%)에 절반 이상이 종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비중

	(%, %p)		
	2013~14	2019	차이
전체	100.0	100.0	
농림어업	6.2	12.1	5.9
광·제조업	70.8	62.0	-8.8
건설업	3.5	3.1	-0.4
도소매·음식·숙박업	7.5	11.6	4.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	0.6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2.0	10.7	-1.3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비중(2019년)

	(%, %p)		
	전국	비수도권	대구경북
전체	100.0	100.0	100.0
농림어업	6.0	13.2	12.1
광·제조업	46.3	56.7	62.0
건설업	11.0	4.5	3.1
도소매·음식·숙박업	19.1	12.8	1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6	0.4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6.0	12.4	10.7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참고1>

외국인 계절근로자

□ 파종기, 수확기를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의 단기·계절적 인력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

○ 농·어가가 속한 기초 지자체(시·군)이 자율권을 갖고 해당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해외 또는 국내 거주 친척,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 등을 초청하는 형태

○ 고용기간은 90일 이내(C-4 단기취업비자)와 5개월 이내(E-8 장기체류자격 계절근로비자) 중 선택 가능

○ 2015년 도입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매년 지속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여 농·어촌 일손부족이 한층 심화

— 금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 도입 인원은 112명으로 상반기중 배정인원(821명)의 13.6%에 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 자 체(개)	1	6	21	42	50	25
계절근로자(명)	19	200	1,085	2,824	3,497	223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1.4.29)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기능·기계조작·조립**(55.1%), **단순노무**(18.1%), **농림어업숙련**(10.0%) 등의 순

○ 과거에 비해 기능·기계조작·조립 비중(2013~14년 평균 58.2% → 2019년 55.1%) 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5.5% → 10.0%) 비중이 크게 확대

○ 남성의 경우 기능·기계조작·조립과 농림어업숙련직에 70% 이상이 종사하지만, 여성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외에도 서비스·판매 및 관리자·전문가* 직종에도 각각 20% 내외 수준이 종사

* 회화지도, 예술흥행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의 대부분(남성 56.1%, 여성 77.1%)이 관리자·전문가 직종에 종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중

	(% , %p)		
	2013~14	2019	차이
전체	100.0	100.0	
관리자·전문가	9.1	8.4	-0.7
사무	1.7	0.7	-1.1
서비스·판매	6.1	7.7	1.6
농림어업숙련	5.5	10.0	4.6
기능·기계조작·조립	58.2	55.1	-3.0
단순노무	19.4	18.1	-1.4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직업별 종사비중(2019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관리자·전문가	8.4	5.3	17.6
사무	0.7	0.6	0.9
서비스·판매	7.7	3.3	21.1
농림어업숙련	10.0	12.1	3.7
기능·기계조작·조립	55.1	61.7	35.5
단순노무	18.1	17.1	21.1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숙련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며 상당한 실무 지식·기술 또는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3~4수준 일자리(고숙련 일자리) 종사비중은 11.5% 수준에 불과

*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또는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 전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저숙련 일자리 종사비중(88.5%)은 대전충남충북세종(8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한편 전체 외국인 여성 임금근로자의 21.5%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고숙련 일자리에 근무(남성은 8.5%)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무수준별¹⁾ 종사비중(2019년)

	(%)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62.3	26.2	6.0	5.5
남성	61.7	29.9	5.0	3.5
여성	64.4	14.2	9.3	12.2
초졸이하	88.2	10.6	1.2	0.0
중졸	71.1	27.0	1.9	0.0
고졸	68.6	27.1	2.4	1.8
대졸이상	41.5	28.7	14.6	15.3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무수준별¹⁾ 종사비중(2019년)

	(%)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62.3	26.2	6.0	5.5
농림어업	79.1	18.8	1.2	0.8
광·제조업	62.2	33.3	4.0	0.5
건설업	66.7	23.4	6.0	3.9
도소매·음식·숙박업	79.4	9.1	3.7	7.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6.4	12.3	22.9	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4.7	8.5	26.0	40.7

주: 1) 1수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2수준: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3수준: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4수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71.8%는 **중사업체 규모 5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중**

○ 성별로는 남성의 10~299인 이하 업체 종사비율이 71.4%인 반면, 여성은 29인 이하 업체 종사비율이 과반 이상

— 다만 남성과 여성 모두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비율은 낮았음

○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9인 이하 업체 종사비율이 각각 77.6%, 83.6%에 달하며, 광·제조업도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비율은 1.6%에 불과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 산업별·종사자 규모별 종사비중(2019년)

(%)

	4인 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합
전체	15.7	16.1	26.3	13.7	25.9	2.3	100.0
남성	11.8	14.6	28.1	15.6	27.8	2.2	100.0
여성	27.2	20.7	21.0	7.8	20.3	2.9	100.0
농림어업	43.8	33.8	20.9	1.6	0.0	0.0	100.0
광·제조업	2.5	8.2	31.1	19.2	37.5	1.6	100.0
건설업	22.0	25.4	24.8	8.9	16.2	2.7	100.0
도소매·음식·숙박업	51.4	32.2	11.0	2.2	3.2	0.0	100.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	12.3	0.0	16.3	48.5	22.9	100.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9	22.3	23.2	8.8	14.1	10.6	100.0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4 고용안정성이 낮아진 가운데 임금도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

□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지역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취업자수가 감소**(2019년 5.5만명 → 2020년 5.2만명)하면서 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률이 8.0%로 상승**

○ **서울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며 2013년 실업률(1.0%) 대비 상승폭도 가장 큰 수준

* 동 기간중 대구경북 전체 실업률은 2.5%에서 4.9%로 상승

외국인 근로자 실업률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전북	강원 제주
2013년(A)	4.0	5.0	2.4	8.4	2.9	2.0	3.9	1.0	2.1	1.9
2019년	5.5	6.4	4.0	9.4	5.0	4.1	3.9	4.5	3.4	4.4
2020년(B)	7.6	8.7	5.6	12.0	7.2	4.9	5.3	8.0	5.4	4.2
차이(B-A)	3.6	3.7	3.2	3.6	4.3	2.9	1.4	7.0	3.3	2.3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를 보면, **200~300만원**이 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00~200만원 29.1%, 300만원 이상 11.6% 등의 순

○ 2013~14년중 임금 분포와 비교하면, 100~200만원 비중(56.4% → 29.1%)이 감소한 반면 200~300만원(33.7% → 54.1%)과 300만원 이상(2.6% → 11.6%)의 비중이 크게 확대

○ 다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300만원 이상 임금 비율**(11.6%)은 **전국**(16.3%)과 **비수도권**(13.0%)을 **하회**하였으며

지난 2013~14년 대비 대구경북지역의 **200만원 이상 임금 비율 증가폭**(29.4%p)도 **전국**(37.1%p)과 **비수도권**(31.4%p)을 **하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

	(%, %p)		
	2013~14	2019	차이
전체	100.0	100.0	
100만원 미만	7.3	5.2	-2.1
100~200만원 미만	56.4	29.1	-27.3
200~300만원 미만	33.7	54.1	20.4
300만원 이상	2.6	11.6	9.0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지역별 · 월평균 임금 비중(2019년)

	(%, %p)		
	전국	비수도권	대구경북
전체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	5.1 (0.2)	4.8 (-1.7)	5.2 (-2.1)
100~200만원 미만	27.2 (-37.3)	30.0 (-29.7)	29.1 (-27.3)
200~300만원 미만	51.3 (26.3)	52.3 (22.9)	54.1 (20.4)
300만원 이상	16.3 (10.8)	13.0 (8.5)	11.6 (9.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은 상용직 69.8%, 임시일용 근로자가 26.6%, 비임금 근로자가 3.6% 등의 순

○ 지난 2013~14년에 비해 **상용직 비중**(77.8% → 69.8%)이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17.5% → 26.6%)이 **확대**

—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의 상용직 비율이 85.6%에 달한 반면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임시일용직 비율이 각각 76.7%와 63.5%

○ 성별로는, 남성 상용직 비중(76.1%)이 여성(50.8%)보다 높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

	(%, %p)		
	2013~14	2019	차이
전체	100.0	100.0	
임금	95.3	96.4	1.1
(상용)	77.8	69.8	-8.0
(임시일용)	17.5	26.6	9.1
비임금	4.7	3.6	-1.1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 · 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2019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임금	96.4	98.3	90.6
(상용)	69.8	76.1	50.8
(임시일용)	26.6	22.2	39.8
비임금	3.6	1.7	9.4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전국과 비교시,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일용 비중**은 대전 충청충북세종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나 비중 상승 폭은 매우 높은 수준**

외국인 취업자의 지역별·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2019년)¹⁾

(%, %p)

	임금		(상용)		(임시일용)		비임금		합
전국	95.6	(-0.9)	57.5	(-5.3)	38.2	(4.4)	4.4	(0.9)	100.0
수도권	95.2	(-1.4)	51.2	(-5.1)	44.0	(3.6)	4.8	(1.4)	100.0
서울	93.4	(-2.0)	34.6	(-6.1)	58.8	(4.2)	6.6	(2.0)	100.0
경기인천	96.0	(-1.3)	58.6	(-6.1)	37.4	(4.8)	4.0	(1.3)	100.0
비수도권	96.3	(0.0)	68.0	(-6.1)	28.4	(6.1)	3.7	(0.0)	100.0
부산울산경남	96.4	(-1.3)	67.3	(-11.7)	29.0	(10.4)	3.6	(1.3)	100.0
대전충남충북세종	97.2	(-0.5)	73.1	(-0.3)	24.0	(-0.2)	2.8	(0.5)	100.0
대구경북	96.4	(1.1)	69.8	(-8.0)	26.6	(9.1)	3.6	(-1.1)	100.0
광주전남전북	95.6	(1.6)	63.5	(0.1)	32.2	(1.5)	4.4	(-1.6)	100.0
강원제주	94.4	(1.9)	55.7	(-8.7)	38.7	(10.6)	5.6	(-1.9)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5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0.1%), **한국계 중국인**(15.8%), **인도네시아**(8.3%), **우즈베키스탄**(7.5%)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
 - 지난 2013~14년과 비교하면 중국(2013~14년 7.3% → 2019년 3.8%)과 인도네시아(13.0% → 8.3%) 비중이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 네팔 등 기타 아시아국가(22.0% → 25.6%)와 유럽(0.9% → 5.7%) 출신 근로자 비중은 상승
- 산업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은 48.3%가 광·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농림어업(27.1%) 및 도소매·음식·숙박업(23.4%)에도 약 절반 수준이 종사하였으나, 한국계 중국인은 60.2%가 광·제조업에 근무하고 농림어업 비중은 낮은 편
 -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및 태국 출신 근로자의 광·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았고, 농림어업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중국 출신 근로자들은 약 절반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였으며, 북미, 일본 출신 근로자들 대부분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종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국적별·산업별 비중(2019년)¹⁾

(%)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합
전체	12.1 (5.9)	62.0 (-8.8)	3.1 (-0.3)	11.6 (4.0)	0.6 (0.6)	10.7 (-1.3)	100.0
아시아	11.7 (5.2)	62.4 (-12.7)	3.0 (-0.6)	10.6 (2.7)	0.6 (0.6)	11.7 (4.8)	100.0
한국계 중국	3.9 (-2.5)	60.2 (-14.0)	10.2 (8.1)	13.3 (3.6)	0.0 (0.0)	12.4 (4.9)	100.0
중국	11.1 (0.0)	21.6 (-16.1)	1.9 (-0.1)	47.2 (16.8)	0.0 (0.0)	18.3 (-0.5)	100.0
베트남	27.1 (11.0)	48.3 (-18.1)	0.6 (-6.5)	23.4 (18.7)	0.6 (0.6)	0.0 (-5.5)	100.0
우즈베키스탄	0.0 (0.0)	95.5 (-3.6)	0.0 (0.0)	1.0 (1.0)	2.3 (2.3)	1.2 (0.2)	100.0
인도네시아	23.4 (20.7)	73.1 (-24.2)	0.0 (0.0)	0.0 (0.0)	0.0 (0.0)	3.5 (3.5)	100.0
일본	0.0 (-36.3)	13.8 (-30.1)	0.0 (0.0)	16.7 (10.1)	0.0 (0.0)	69.5 (56.3)	100.0
태국	8.8 (8.8)	86.7 (-13.3)	0.0 (0.0)	4.5 (4.5)	0.0 (0.0)	0.0 (0.0)	100.0
아시아 이외	0.0 (-1.8)	42.1 (40.3)	0.0 (-1.9)	11.4 (9.9)	2.3 (1.8)	44.2 (-48.3)	100.0
미국·캐나다	0.0 (-2.7)	0.0 (-1.1)	0.0 (-0.7)	9.5 (7.7)	0.0 (-0.7)	90.5 (-2.4)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6 재외동포와 유학생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 비중은 감소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은 **비전문취업(E-9)** 39.5%, **재외동포(F-4)** 16.7%, **방문취업(H-2)** 10.5% 순

○ 지난 2013~14년에 비해 비전문취업(E-9)의 비중(57.5% → 39.5%)이 줄어든 반면, **재외동포(F-4)**(6.2% → 16.7%)와 **유학생(D-2, D-4~1,7)**(1.5% → 5.4%) **비중은 크게 증가**

— 이는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국내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국제화를 위한 지역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 등에 주로 기인

○ 반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E-1~E-7)의 비중** (7.3% → 5.4%)은 지난 2013~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2019년중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이 회화지도(E-2), 예술홍행(E-6) 등 서비스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 (E-7) 종사인력의 비중은 35.9%에 불과**

-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서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도입직종은 85개 직종(471개 세부직업)으로 구성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2019년)

(%, %p)

	비전문 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합
전체	39.5 (-18.0)	10.5 (0.5)	5.4 (-1.9)	5.4 (3.9)	16.7 (10.5)	4.2 (-0.1)	9.8 (0.9)	8.6 (4.2)	100.0
남성	50.2 (-18.2)	10.3 (0.3)	4.2 (0.0)	3.2 (1.9)	16.0 (9.7)	2.6 (-1.6)	2.9 (1.2)	10.6 (6.7)	100.0
여성	7.2 (-18.7)	10.9 (1.2)	8.9 (-7.1)	12.0 (10.0)	18.8 (12.8)	8.8 (4.2)	30.7 (0.8)	2.6 (-3.2)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전국과 비교시에도, 지난 2013~14년 대비 대구경북지역의 비전문취업(E-9) 비중 감소폭과 재외동포(F-4) 및 유학생(D-2, D-4~1,7) 비중 증가폭은 두드러짐

— 한편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전문인력(E-1~E-7) 비중(5.4%)은 전국(4.4%)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비수도권(5.8%)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전문인력에서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종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35.9%)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전국 55.1%, 비수도권 51.6%)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2019년)

(%, %p)

	비전문 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합
전국	30.2 (-2.2)	18.3 (-6.3)	4.4 (-1.4)	2.7 (1.5)	22.5 (8.3)	8.9 (0.9)	6.5 (-1.1)	6.4 (0.3)	100.0
비수도권	41.3 (-7.3)	10.7 (-3.1)	5.8 (-1.0)	4.2 (2.1)	16.6 (8.3)	5.1 (0.7)	8.1 (-0.4)	8.2 (0.8)	100.0
대구경북	39.5 (-18.0)	10.5 (0.5)	5.4 (-1.9)	5.4 (3.9)	16.7 (10.5)	4.2 (-0.1)	9.8 (0.9)	8.6 (4.2)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또한 체류자격·산업별 분포에 있어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경우 광·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유학생(D-2, D-4~1,7)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문인력(E-1~E-7)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대부분 종사

— 특히 광·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E-1~E-7) 비중은 12.3%에 불과하여 전국(12.7%) 및 비수도권*(15.2%)을 하회

* 강원제주지역 제외시 20.4%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산업별 종사비중(2019년)

(%)

	전체	비전문 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2.1	13.2	2.1	0.0	0.0	2.4	4.0	4.4	65.9
광·제조업	62.0	82.7	73.0	12.3	1.8	75.3	43.0	50.1	19.1
건설업	3.1	1.7	6.6	0.0	7.8	3.6	8.4	2.7	1.4
도소매·음식·숙박업	11.6	1.0	10.3	16.9	75.6	8.9	11.5	26.8	5.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6	0.0	0.0	2.6	3.4	0.4	0.0	0.0	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7	1.5	8.0	68.2	11.5	9.3	33.1	16.1	5.5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참고2>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 현행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은 취업활동 전제 여부에 따라 취업사증과 비취업사증으로 구분 가능

○ 취업사증: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발급되며 크게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선원취업(E-10) 등으로 구분

— 비전문취업(E-9):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6개국* 출신 근로자들에게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및 농축산업) 한도 내에서 발급되며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 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이들을 고용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 방문취업(H-2): 만18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국내 취업시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을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46개 허용업종에서 취업이 가능
- 전문인력(E-1~E-7):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등 전문 분야에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
- 선원취업(E-10): 여객운송업, 어업 등의 사업체와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
- 비취업사증: 취업활동 여부에 제한을 받지 않고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 해당
 - 거주(F-2):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난민 인정자, 나이·학력·소득 또는 투자지역·대상·금액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
 -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외 대학 졸업자, 법인기업 대표,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다만 단순노무행위에는 종사할 수 없음
 - 영주(F-5):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거나 우리나라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서 일정 기간(예: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에게 발급되며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움
 -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급
- 한편 유학생(D-2, D-4~1,7)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에게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활동(통번역, 사무보조, 판매보조 등, 다만 개인과의 교습은 불허)에 한정하여 허용

IV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 ◆ 저학력·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중소기업체들의 **내국인 근로자 부족 상황**(구인난) **해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반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E-1~E-7)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종사인력**이 **전체 전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9%**에 불과
- ◆ 대구경북지역의 고령화 및 지방소멸위험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의 **청년층 인력 공급**에 **기여**
- ◆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 수준**이 전국에 비해 **낮고**,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악화**

가. 저학력·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에 일부 기여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내국인 근로자 부족 상황**(구인난) **해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들은 주로 **광·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대체로 **직무수준**이 **낮고 고졸 이하 비중**이 **높았음**
-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5~299인 이하)의 **인력부족률***(전산업 1.6%, 광·제조업 1.8%)은 **대기업**(300인 이상)의 **인력부족률**(전산업 1.1%, 광·제조업 0.5%)을 **크게 상회**(2020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2020.10월)

* 인력부족률: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부족인원: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미충원인원* 중 저숙련**(1수준~2-2수준) 근로자 비중이 전산업 81.0%, 광·제조업 81.6%에 달하였음

* 미충원인원: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

** 1수준: 현장경력 없어도 됨, 자격증 취득 수준을 요하지 않음(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2-1수준: 1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수준(고졸수준의 업무)

2-2수준: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 수준(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 한편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80%)의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유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를 선택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 애로실태 조사(2018.7월)

□ 반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E-1~E-7)의 비중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 (E-7) 종사인력**이 **전체 전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9%에 불과**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도입직종은 85개 직종(471개 세부직업)으로 구성

○ 특히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전문인력(E-1~E-7) 비중(5.4%)은 비수도권(5.8%)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문인력에서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종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35.9%)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음**

나. 농어촌 지역 청년층 인력공급에 기여

□ 대구경북지역의 고령화 및 지방소멸위험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의 **청년층 인력 공급에 기여**

- 대구경북지역 산업별·연령별 외국인 취업자 비중(2019년 기준)을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0대 이하가 83.2%를 차지하여 광·제조업(73.6%), 도소매·음식·숙박업(66.4%) 등을 크게 상회
- 한편 파종, 수확 등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가장 심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취업자의 일시적 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고가 분석한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동 근로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취업자의 대구경북지역 농림어업 실제 종사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

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여건 및 고용안정성은 저하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 수준**이 전국에 비해 **낮고**,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악화**
- 한편 본고가 분석한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

* 2020년중 전국 불법체류자는 총 39만 2196명으로 2016년(20만 8971명)에 비해 87.7% 증가

2 시사점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인력난**에 대처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

1.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는 코로나19 기간중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가격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 심화에 대응
	❖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 산업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지원, 직업훈련 기회 제공
2. 연구개발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	❖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연구, 개발 등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대학과의 연계 및 지역 내 정책 장려 도 고려
	❖ 입국 후 성실히 근무하여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허용 규모도 확대
	❖ 유학생 중 성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졸업 후 전공 및 전문성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체류자격 취득 을 지원
3. 종합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 구축	❖ 국가 및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 노동력과 지역사회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 추진
	❖ 외국인 거주자와의 상호 포용적 문화 를 형성해나가는 한편, 외국인력의 적응 및 사회통합 을 지원

가.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력난 심화**가 우려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년중 비전문취업(E-9) 도입규모(2019년 51,365명 → 2020년 6,688명) 및 방문취업(H-2) 등록자 수(2019년 63,339명 → 2020년 6,044명)가 각각 87.0%, 90.5% 감소(법무부)

○ 설문조사* 결과 72.3%의 중소기업이 기피업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답변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 조사(2020.7월)

□ **지자체**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기간중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가격리 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 심화에 대응할 **필요**

*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20.7월)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부분(88.4%)이 외국인력 입국시 외국인근로자 자가 격리를 위한 정부·지자체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중장기적으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산업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지원,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활성화할 필요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생(D-2, D-4~1,7), 결혼이민(F-6)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실업률이 크게 상승(2013년 1.0% → 2020년 8.0%)

□ 한편 **정부**는 2021년중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21.4월)

○ 또한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등으로까지 **확대**

□ 다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련의 완화적 조치들이 **외국인력의 편법적 활용,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할 필요

□ 또한 **저학력·비숙련 외국인 인력**은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 공급 부족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지역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미진, 영세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도 발생 가능

○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는 저비용·저수익 업체들에 저학력·비숙련·저임금의 외국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이들 기업에서의 작업환경 개선,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유인을 낮추고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나. 연구개발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

□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교적 소수인 데다 주로 회화지도(E-2), 예술홍행(E-6)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이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필요

- 특히 국내 전문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연구·개발 등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대학과의 연계** 및 지역 내 **정착** 장려**도 고려

* 이른바 '양재 라인', '기흥 라인' 등이 우수인력의 '취업 남방한계선'이라고 회자되는 가운데, 2018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연구개발비 및 인력수의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5.1% 및 6.5%에 불과하였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3년 미만 비중이 48.1%

□ 또한 입국 후 **성실히 근무**하여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허용 규모도 확대**해 나갈 필요

-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숙련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술 축적에도모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 근무 유인을 높일 수 있을 전망

* 최근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 원인으로 기업들이 경험 및 숙련도 측면에서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외국인 근로자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

수습기간(3개월) 중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64.4% 수준에 불과하며, 1년이 경과하여야 90% 이상의 생산성을 보임(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2020.5월)

□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유학생**의 효과적인 관리 및 국내 정착을 위해, 성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졸업 후 전공 및 전문성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할 필요

<참고3>

우수 외국인력 유치·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 정부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력 관련 정책과제를 2021.7.7일 발표한 가운데,

우수 외국인력 유치·지원을 위한 숙련기능인력제도(E-7-4) 확대, 우수인재 유치체계 개편,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 유학생 적응 및 정착 지원 등이 동 정책과제에 포함
 -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현행 1,250명에서 2025년 2,000명까지 확대 예정
 -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외국인력이 연간소득, 기술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해주는 제도
 - 우수인재에게 거주(E-2)자격을 허용하는 한편 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에는 사전에 허용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혼용
 - 각 지역별 지역특화산업, 대학·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재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계획
 - 한국어능력,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장기체류를 허용
 - 유학생의 사회통합 노력을 장려하고 전문성 수준에 따라 국내 취업 지원 방안 추진

다. 종합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활용은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제적 관점 외에도

분배 구조, 국가 정체성, 사회 통합, 공공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숙련수준, 체류자격 등에 따라 관련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 및 지역 경제를 위해 어떠한 노동력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 또한 외국인 거주자와의 상호 포용적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한편, 외국인력의 적응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갈등·범죄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 영남권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8년중 51.8점으로 전국 평균(52.8점)을 소폭 하회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붙임1>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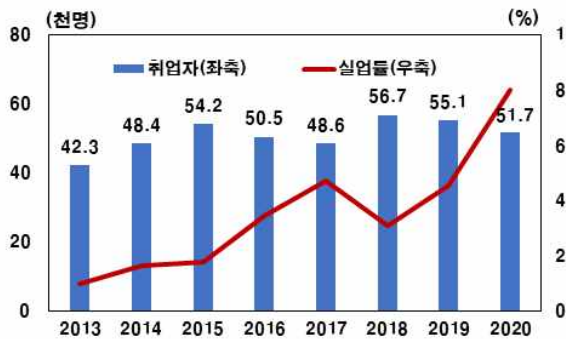
1 개 황

-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는 5.5만명이었으며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가 전국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서 지난 2013년(6.3%)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음
-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실업률이 2020년중 8.0%로 크게 높아졌으며 지역내 총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2.1%)도 전국(3.2%) 및 비수도권(2.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 또한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 중 남성 및 청장년층(15~49세) 비중(각각 75% 및 89.2%)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비중(68.8%)이 높았음

가. 전체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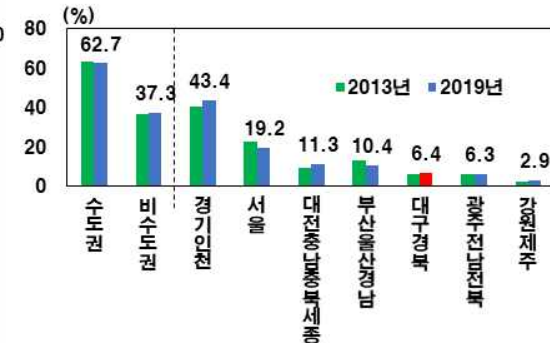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는 5.5만명으로 2013년(4.2만명) 대비 연평균 4.5% 증가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수가 전국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서, 2013년(6.3%)에 비해서는 큰 변화는 없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



○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지역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취업자수가 감소(2019년 5.5만명 → 2020년 5.2만명)하면서 대구 경북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률이 8.0%로 상승

— 서울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며 2013년 실업률(1.0%) 대비 상승폭도 가장 큰 수준

* 동 기간중 대구경북 전체 실업률은 2.5%에서 4.9%로 상승

외국인 근로자 실업률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전북	강원 제주
2013년(A)	4.0	5.0	2.4	8.4	2.9	2.0	3.9	1.0	2.1	1.9
2019년	5.5	6.4	4.0	9.4	5.0	4.1	3.9	4.5	3.4	4.4
2020년(B)	7.6	8.7	5.6	12.0	7.2	4.9	5.3	8.0	5.4	4.2
차이(B-A)	3.6	3.7	3.2	3.6	4.3	2.9	1.4	7.0	3.3	2.3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총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2019년 현재 2.1%로 2013년(1.6%)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전국(3.2%) 및 비수도권(2.4%)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지역별 총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전북	강원 제주
2013년	2.6	3.3	1.9	2.9	3.6	2.2	2.3	1.6	1.5	1.3
2019년	3.2	3.9	2.4	3.3	4.4	2.2	3.2	2.1	2.0	2.0
차이	0.6	0.6	0.5	0.4	0.8	0.0	0.9	0.5	0.5	0.7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성별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은 75%로서, 외국인 여성 취업자 비중(25%)이 전국에서 부산·울산·경남(23.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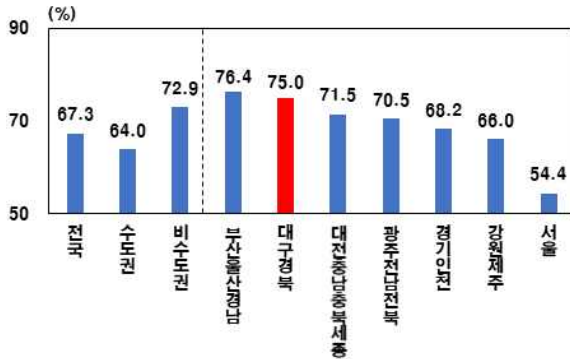
- 이는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들이 광·제조업 및 농림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데 주로 기인*

* p.33, 외국인 취업자의 지역별·산업별 종사비중(2019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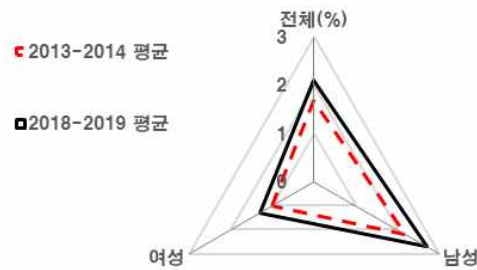
— 한편 대구경북지역 여성 외국인은 남성에 비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남성 82.7%, 여성 45.9%)과 높은 실업률(남성 2.9%, 여성 9.0%)을 기록

- 지난 2013~14년에 비해 2018~19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총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남성(2.2% → 2.7%)과 여성(1.0% → 1.3%) 모두 상승

남성 외국인 취업자의 비율(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 국내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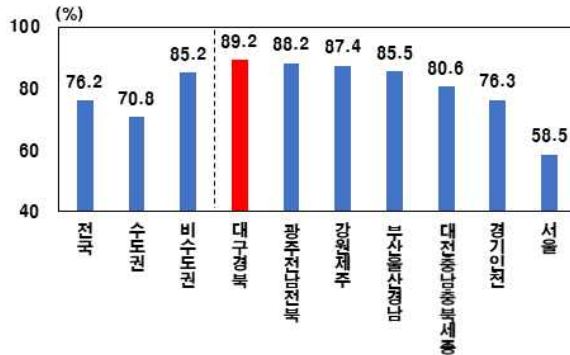
다. 연령별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39.1%, 20대 이하 33.1%, 40대 16.9%, 50대 이상 10.8% 순이며, 청장년층(15~49세) 비중이 8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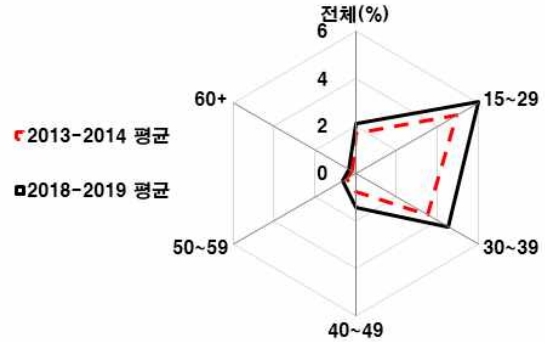
- 50대 이상 비중도 재외동포(F-4) 자격 취업자 등의 증가에 힘입어 2013년 7.4%에서 2019년 10.8%로 증가

- 2018~19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연령별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13~14년과 비교하여 특정 연령대에서 늘기보다는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증가

외국인 취업자중 청장년층 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연령대별 국내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라. 교육수준별

- 2019년 현재 외국인 취업자 중 고졸 이하 비중이 68.8%에 달하는 등 여전히 저·중학력 취업자가 다수이나, 대졸 이상 비중이 큰 폭 상승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고졸 비중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대졸 이상 비중(36.6%)이 남성(29.4%)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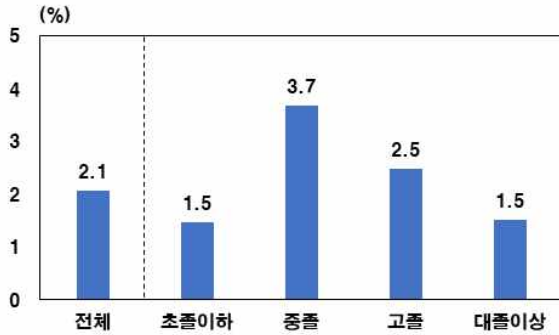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비중(2019년)¹⁾

	전체		남성		여성	
	(%)	(%p)	(%)	(%p)	(%)	(%p)
전체	100.0		100.0		100.0	
초졸이하	7.9	(-0.4)	7.1	(0.1)	10.3	(-1.6)
중졸	16.8	(-5.6)	17.2	(-6.1)	15.7	(-4.0)
고졸	44.1	(-2.6)	46.3	(-2.2)	37.4	(-4.0)
대졸이상	31.2	(8.5)	29.4	(8.2)	36.6	(9.6)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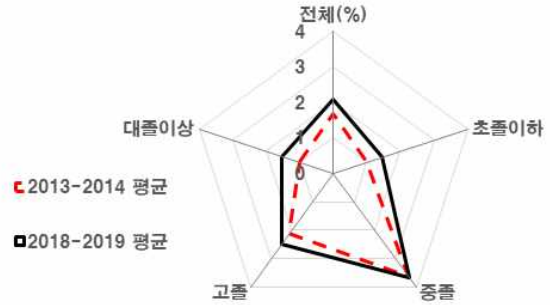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교육수준별 대구경북지역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졸이 3.7%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에서는 1.5%에 불과
- 한편 지난 2013~14년에 비해 2018~19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총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전 수준에서 상승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국내 취업자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국내 취업자 비중 추이



2 산업별·직업별·직무수준별·종사상지위별

-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62.0%)에 주로 종사하는 가운데 농림어업(2013~14년 평균 6.2% → 12.1%) 및 도소매·음식·숙박업(7.5% → 11.6%) 종사 비중이 크게 확대
 - 특히 대구경북 외국인 취업자의 광·제조업 및 농림어업 종사 비중은 전국(각각 46.3% 및 6.0%)을 크게 상회
 - 직업별로도 기능·기계조작·조립 비중(55.1%)이 가장 높은 가운데 농림어업 숙련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2013~14년 평균 5.5% → 10.0%)
- ◆ 한편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대부분(88.5%)이 저숙련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충남충북세종(89.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은 상용직(69.8%), 임시일용직(26.6%), 비임금 근로자(3.6%) 순
 - 지난 2013~14년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17.5% → 26.6%)이 확대

가. 산업별

□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62.0%), 농림어업(12.1%), 도소매·음식·숙박업(1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0.7%) 등에 주로 종사

○ 과거에 비해 광·제조업의 비중(2013~14년 평균 70.8% → 2019년 62.0%)이 줄어든 반면 농림어업*(6.2% → 12.1%)은 약 두 배 늘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7.5% → 11.6%) 비중도 크게 확대

*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파종·수확 시기에 단기간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외국인 취업자의 대구경북지역 농림어업 종사 비중은 더욱 높을 가능성

○ 남성의 경우 광·제조업(68.2%) 및 농림어업(14.2%)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31.2%)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2%)에 절반 이상이 종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산업별 종사비중(2019년)

	(%, %p)				(%)		
	2013~14	2019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농림어업	6.2	12.1	5.9	농림어업	12.1	14.2	5.8
광·제조업	70.8	62.0	-8.8	광·제조업	62.0	68.2	43.2
건설업	3.5	3.1	-0.4	건설업	3.1	4.1	0.0
도소매·음식·숙박업	7.5	11.6	4.1	도소매·음식·숙박업	11.6	5.0	31.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	0.6	0.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6	0.6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2.0	10.7	-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7	7.8	19.2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수 비중을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 외국인 취업자의 광·제조업 종사 비중(62.0%)은 전국(46.3%) 및 비수도권(56.7%)을 크게 상회하고 농림어업(12.1%) 비중은 전국(6.0%)의 두 배 수준

○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의 광·제조업 비중은 부산·울산·경남 및 대전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농림어업 비중은 광주전라 및 강원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건설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외국인 취업자의 지역별·산업별 종사비중(2019년)¹⁾

(%, %p)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합
전국	6.0 (1.3)	46.3 (-4.6)	11.0 (1.6)	19.1 (1.4)	1.6 (0.3)	16.0 (0.0)	100.0
수도권	1.8 (-0.2)	40.1 (-3.8)	14.9 (2.7)	22.8 (0.7)	2.3 (0.4)	18.2 (0.1)	100.0
서울	0.0 (-0.3)	10.9 (-3.6)	22.7 (2.4)	35.7 (1.0)	4.0 (0.3)	26.8 (0.3)	100.0
경기인천	2.5 (-0.2)	53.0 (-6.8)	11.4 (3.7)	17.0 (1.8)	1.6 (0.6)	14.4 (0.9)	100.0
비수도권	13.2 (3.6)	56.7 (-6.3)	4.5 (-0.1)	12.8 (2.9)	0.4 (0.1)	12.4 (-0.1)	100.0
부산울산경남	8.5 (1.0)	64.6 (-7.0)	4.6 (0.2)	11.3 (3.2)	0.4 (0.0)	10.7 (2.6)	100.0
대전충남충북세종	8.9 (3.3)	63.1 (-0.4)	4.3 (-0.5)	9.7 (-0.6)	0.7 (0.4)	13.3 (-2.3)	100.0
대구경북	12.1 (5.9)	62.0 (-8.8)	3.1 (-0.4)	11.6 (4.1)	0.6 (0.6)	10.7 (-1.3)	100.0
광주전남전북	22.8 (5.2)	46.1 (-3.3)	5.1 (-1.0)	13.9 (1.6)	0.2 (-0.7)	12.0 (-1.9)	100.0
강원제주	28.6 (-1.4)	14.5 (-5.1)	6.2 (2.3)	31.2 (8.9)	0.0 (-0.4)	19.5 (-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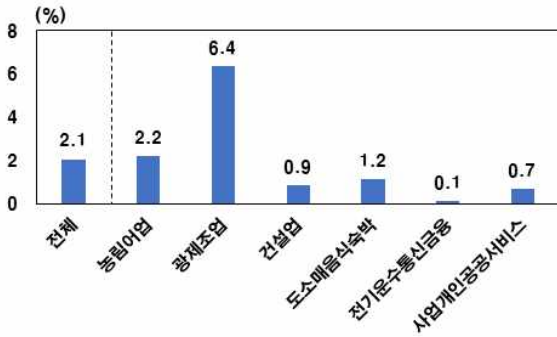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 산업별 총 근로자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제조업이 6.4%, 농림어업이 2.2%로 대구경북지역 전산업 외국인 취업자 비중 평균(2.1%)을 상회

— 지난 2013~2014년에 비해 2018~19년중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국내 취업자 비중은 농림어업(0.9% → 2.2%)과 광·제조업*(5.9% → 6.6%)을 중심으로 상승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광·제조업 종사 비중은 소폭 감소(2013~14년 평균 70.8% → 2018~19년 62.4%)하였으나 종사자 규모는 증가(2013~14년 평균 3.2만명 → 2018~19년 3.5만명)한 반면, 대구경북지역 전체 취업자중 광·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감소(2013~14년 평균 54.5만명 → 2018~19년 52.8만명)한 데에서 기인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국내 취업자 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국내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직업별

□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기능·기계조작·조립 (55.1%), 단순노무(18.1%), 농림어업숙련(10.0%) 등의 순

- 과거에 비해 기능·기계조작·조립 비중(2013~14년 평균 58.2% → 2019년 55.1%)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5.5% → 10.0%) 비중이 크게 확대
- 남성의 경우 기능·기계조작·조립과 농림어업숙련직에 70% 이상이 종사하지만, 여성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외에도 서비스·판매 및 관리자·전문가* 직종에도 각각 20% 내외 수준이 종사

* 회화지도, 예술흥행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의 대부분(남성 56.1%, 여성 77.1%)이 관리자·전문가 직종에 종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중

	(% , %p)		
	2013~14	2019	차이
전체	100.0	100.0	
관리자·전문가	9.1	8.4	-0.7
사무	1.7	0.7	-1.1
서비스·판매	6.1	7.7	1.6
농림어업숙련	5.5	10.0	4.6
기능·기계조작·조립	58.2	55.1	-3.0
단순노무	19.4	18.1	-1.4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직업별 종사비중(2019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관리자·전문가	8.4	5.3	17.6
사무	0.7	0.6	0.9
서비스·판매	7.7	3.3	21.1
농림어업숙련	10.0	12.1	3.7
기능·기계조작·조립	55.1	61.7	35.5
단순노무	18.1	17.1	21.1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직업별 외국인 취업자수 비중을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기계조작·조립, 농림어업숙련 비중은 전국(각각 40.3% 및 2.7%) 및 비수도권(각각 46.3% 및 6.1%)을 상회

○ 사무 및 단순노무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외국인 취업자의 지역별·직업별 종사비중(2019년)¹⁾

(%, %p)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숙련	기능·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합
전국	8.6 (-1.6)	2.8 (0.1)	13.5 (2.2)	2.7 (-0.3)	40.3 (-0.9)	32.1 (0.5)	100.0
수도권	8.8 (-1.7)	3.8 (0.6)	16.2 (2.0)	0.7 (-0.3)	36.8 (0.9)	33.7 (-1.6)	100.0
서울	15.6 (-0.9)	6.0 (0.8)	25.6 (4.0)	0.1 (-0.1)	25.6 (1.8)	27.1 (-5.7)	100.0
경기인천	5.9 (-1.4)	2.8 (0.7)	12.0 (1.9)	1.0 (-0.4)	41.7 (-0.6)	36.6 (-0.1)	100.0
비수도권	8.1 (-1.6)	1.1 (-0.7)	9.0 (2.6)	6.1 (-0.4)	46.3 (-4.2)	29.3 (4.1)	100.0
부산울산경남	9.2 (-0.4)	1.3 (-0.3)	6.9 (2.7)	3.1 (-2.4)	58.5 (-1.9)	20.9 (2.4)	100.0
대전충남충북세종	6.2 (-2.6)	1.2 (0.1)	7.3 (0.7)	3.2 (0.4)	44.5 (-3.2)	37.6 (4.5)	100.0
대구경북	8.4 (-0.7)	0.7 (-1.1)	7.7 (1.6)	10.0 (4.6)	55.1 (-3.0)	18.1 (-1.4)	100.0
광주전남전북	7.7 (-1.3)	0.7 (-1.6)	9.3 (2.2)	7.9 (-3.9)	36.8 (-1.4)	37.6 (6.1)	100.0
강원제주	12.2 (-6.8)	2.0 (-2.7)	25.2 (7.3)	16.1 (-2.0)	10.5 (1.0)	34.0 (3.3)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다. 직무수준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숙련 일자리*에 주로 종사

*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또는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 상당한 실무 지식·기술 또는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고숙련 일자리) 종사비중은 11.5% 수준에 불과

— 한편 전체 외국인 여성 임금근로자의 21.5%가 고숙련 일자리에 근무(남성은 8.5%)하였으며, 고숙련 일자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주로 분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무수준별¹⁾ 종사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무수준별¹⁾ 종사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무수준별 ¹⁾ 종사비중(2019년)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무수준별 ¹⁾ 종사비중(2019년) (%)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62.3	26.2	6.0	5.5	전체	62.3	26.2	6.0	5.5
남성	61.7	29.9	5.0	3.5	농림어업	79.1	18.8	1.2	0.8
여성	64.4	14.2	9.3	12.2	광·제조업	62.2	33.3	4.0	0.5
초졸이하	88.2	10.6	1.2	0.0	건설업	66.7	23.4	6.0	3.9
중졸	71.1	27.0	1.9	0.0	도소매·음식·숙박업	79.4	9.1	3.7	7.8
고졸	68.6	27.1	2.4	1.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6.4	12.3	22.9	18.4
대졸이상	41.5	28.7	14.6	15.3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24.7	8.5	26.0	40.7

주: 1) 1수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2수준: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3수준: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4수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전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저숙련 일자리 종사 비중(88.5%)은 대전충남충북세종(8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한편 고숙련 일자리 근로자 비중의 경우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울산경남 및 강원제주 비중이 높음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지역별·직무수준별¹⁾ 종사비중(2019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합
전국	58.4	25.9	7.9	7.8	100.0
수도권	56.6	26.2	8.6	8.7	100.0
서울	49.3	23.5	12.2	15.1	100.0
경기인천	59.7	27.3	7.0	5.9	100.0
비수도권	61.4	25.4	6.7	6.4	100.0
부산울산경남	48.8	34.9	9.3	7.0	100.0
대전충남충북세종	68.6	21.2	5.1	5.0	100.0
대구경북	62.3	26.2	6.0	5.5	100.0
광주전남전북	66.5	19.5	6.3	7.7	100.0
강원제주	64.7	19.4	6.3	9.6	100.0

주: 1) 1수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2수준: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3수준: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4수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라. 종사상 지위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은 상용직 69.8%, 임시일용 근로자가 26.6%, 비임금 근로자가 3.6% 등의 순

○ 지난 2013~14년에 비해 상용직 비중(77.8% → 69.8%)이 감소한 반면 임시
일용직(17.5% → 26.6%)이 확대

—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의 상용직 비율이 85.6%에 달한 반면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임시일용직 비율이 각각 76.7%와 63.5%

○ 성별로는, 남성 상용직 비중(76.1%)이 여성(50.8%)보다 높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2019년)**

(% , %p)				(%)			
	2013~14	2019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임금	95.3	96.4	1.1	임금	96.4	98.3	90.6
(상용)	77.8	69.8	-8.0	(상용)	69.8	76.1	50.8
(임시일용)	17.5	26.6	9.1	(임시일용)	26.6	22.2	39.8
비임금	4.7	3.6	-1.1	비임금	3.6	1.7	9.4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전국과 비교시,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일용 비중은 대전충남
충북세종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나 비중의 상승폭은 매우
높은 수준

외국인 취업자의 지역별·종사상 지위별 종사비중(2019년)¹⁾

	임금		(상용)		(임시일용)		비임금		합
	(%)	(%p)	(%)	(%p)	(%)	(%p)	(%)	(%p)	
전국	95.6	(-0.9)	57.5	(-5.3)	38.2	(4.4)	4.4	(0.9)	100.0
수도권	95.2	(-1.4)	51.2	(-5.1)	44.0	(3.6)	4.8	(1.4)	100.0
서울	93.4	(-2.0)	34.6	(-6.1)	58.8	(4.2)	6.6	(2.0)	100.0
경기인천	96.0	(-1.3)	58.6	(-6.1)	37.4	(4.8)	4.0	(1.3)	100.0
비수도권	96.3	(0.0)	68.0	(-6.1)	28.4	(6.1)	3.7	(0.0)	100.0
부산울산경남	96.4	(-1.3)	67.3	(-11.7)	29.0	(10.4)	3.6	(1.3)	100.0
대전충남충북세종	97.2	(-0.5)	73.1	(-0.3)	24.0	(-0.2)	2.8	(0.5)	100.0
대구경북	96.4	(1.1)	69.8	(-8.0)	26.6	(9.1)	3.6	(-1.1)	100.0
광주전남전북	95.6	(1.6)	63.5	(0.1)	32.2	(1.5)	4.4	(-1.6)	100.0
강원제주	94.4	(1.9)	55.7	(-8.7)	38.7	(10.6)	5.6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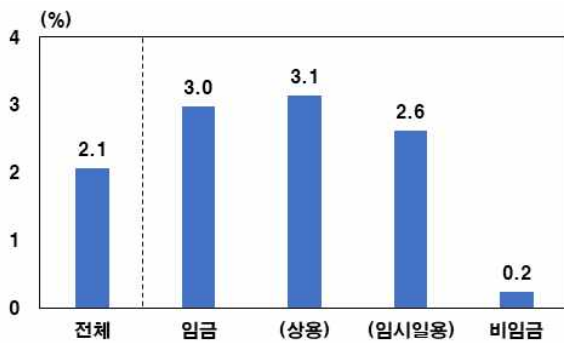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 종사상 지위별 총 근로자중 외국인 비중은 상용 근로자가 3.1%, 임시일용 근로자가 2.6%, 비임금 근로자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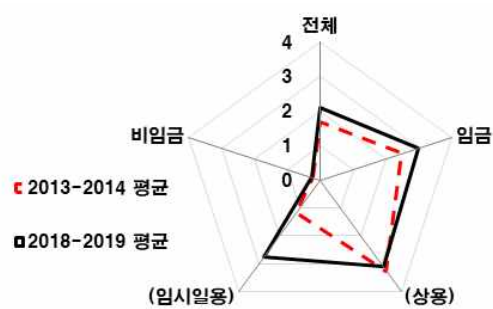
— 지난 2013~2014년에 비해 2018~19년중 국내 취업자 대비 종사상 지위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임시일용직(1.2% → 2.8%)이 크게 상승한 반면, 상용직(3.3% → 3.1%)은 소폭 감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국내 취업자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국내 취업자 비중 추이



마. 종사자 규모

□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종사업체 규모는 50인 미만이 71.8%로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중

○ 성별로는 남성의 10~299인 이하 업체 종사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9인 이하 업체 종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만 남성과 여성 모두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비율은 낮았음

○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9인 이하 업체 종사비율이 각각 77.6%, 83.6%에 달하며, 광·제조업도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비율은 1.6%에 불과

— 외국인 취업자의 높은 중소기업 종사비율은 외국인 고용이 중소기업의 구인난 또는 취업기피 현상을 다소 해결해주고 있음을 암시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성별, 산업별·종사자 규모별 종사비중(2019년)

(%)

	4인 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합
전체	15.7	16.1	26.3	13.7	25.9	2.3	100.0
남성	11.8	14.6	28.1	15.6	27.8	2.2	100.0
여성	27.2	20.7	21.0	7.8	20.3	2.9	100.0
농림어업	43.8	33.8	20.9	1.6	0.0	0.0	100.0
광·제조업	2.5	8.2	31.1	19.2	37.5	1.6	100.0
건설업	22.0	25.4	24.8	8.9	16.2	2.7	100.0
도소매·음식·숙박업	51.4	32.2	11.0	2.2	3.2	0.0	100.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	12.3	0.0	16.3	48.5	22.9	100.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9	22.3	23.2	8.8	14.1	10.6	100.0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30~299인 이하 업체 종사비율(3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비율(2.3%)은 전국(2.9%)과 비수도권(2.6%)을 소폭 하회

외국인 취업자의 지역별·종사자 규모별 종사비중(2019년)¹⁾

(%, %p)

	4인 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합
전국	19.6	(-0.3)	20.4	(0.6)	30.5	(3.2)	9.7	(-3.1)	16.9	(0.2)	2.9	(-0.5)	100.0
수도권	20.9	(-2.6)	21.4	(-0.8)	31.7	(4.9)	8.3	(-2.7)	14.7	(1.5)	3.0	(-0.3)	100.0
서울	27.8	(-5.1)	20.6	(-1.4)	25.4	(4.0)	5.8	(-1.9)	15.4	(4.4)	5.0	(0.0)	100.0
경기인천	17.8	(-0.5)	21.7	(-0.5)	34.5	(4.7)	9.4	(-3.5)	14.4	(0.0)	2.2	(-0.2)	100.0
비수도권	17.4	(3.7)	18.6	(2.9)	28.5	(0.3)	12.2	(-3.9)	20.7	(-2.2)	2.6	(-0.8)	100.0
부산울산경남	14.9	(3.6)	16.5	(-0.2)	31.9	(2.2)	13.4	(-2.1)	21.1	(-2.1)	2.3	(-1.3)	100.0
대전충남충북세종	13.4	(-0.3)	18.5	(6.3)	28.6	(2.5)	13.0	(-4.9)	23.1	(-3.2)	3.4	(-0.4)	100.0
대구경북	15.7	(3.9)	16.1	(2.2)	26.3	(-2.0)	13.7	(-7.8)	25.9	(4.3)	2.3	(-0.5)	100.0
광주전남전북	25.8	(8.6)	19.3	(0.4)	27.6	(-2.3)	9.8	(-1.2)	15.0	(-5.4)	2.4	(-0.2)	100.0
강원제주	27.3	(2.5)	31.0	(7.9)	23.3	(-1.2)	6.4	(-1.1)	10.1	(-5.0)	1.9	(-3.2)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3 임금

◇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54.1%), 100~200만원(29.1%), 300만원 이상(11.6%) 순

○ 2013~14년에 비하면 200~300만원(33.7% → 54.1%)과 300만원 이상(2.6% → 11.6%)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0만원 이상 임금 비율 증가폭(29.4%p)은 전국(37.1%p)과 비수도권(31.4%p)을 하회

□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를 보면, 200~300만원이 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00~200만원 29.1%, 300만원 이상 11.6% 등의 순

○ 2013~14년중 임금 분포와 비교하면, 100~200만원 비중(56.4% → 29.1%)이 감소한 반면 200~300만원(33.7% → 54.1%)과 300만원 이상(2.6% → 11.6%)의 비중이 크게 확대

○ 남성의 경우 200~300만원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100~200만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성별·월평균 임금 비중(2019년)

	(% , %p)				(%)		
	2013~14	2019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	7.3	5.2	-2.1	100만원 미만	5.2	3.6	10.6
100~200만원 미만	56.4	29.1	-27.3	100~200만원 미만	29.1	24.1	45.3
200~300만원 미만	33.7	54.1	20.4	200~300만원 미만	54.1	58.6	39.4
300만원 이상	2.6	11.6	9.0	300만원 이상	11.6	13.7	4.8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외국인 남성 취업자의 68.2%가 비교적 고임금인 광·제조업(외국인 종사자의 80.6%가 200만원 이상)에 종사하는 반면, 외국인 여성은 저임금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200만원 미만 임금 76.1%)에 주로 종사

- 또한 외국인 남성 취업자의 76.1%를 차지하는 상용근로자는 200만원 이상 임금 비율이 77.5%인 반면, 외국인 여성 취업자의 39.8%가 근무하는 임시일용근로자는 65.3%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수령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비중(2019년)

(%)

	광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체	100.0	100.0
100만원 미만	0.7	29.4
100~200만원 미만	18.6	46.7
200~300만원 미만	67.5	20.7
300만원 이상	13.1	3.2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 월평균 임금 비중(2019년)

(%)

	전체	상용	임시일용
전체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	5.2	0.3	18.1
100~200만원 미만	29.1	22.2	47.2
200~300만원 미만	54.1	63.8	28.8
300만원 이상	11.6	13.7	5.9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전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200만원 이상 임금 비율 (65.7%)은 전국(67.6%) 및 비수도권(65.3%)과 유사한 수준

- 한편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11.6%)은 전국(16.3%)과 비수도권(13.0%)을 하회하며, 주로 서울(24.2%), 부산울산경남(16.9%)에서의 비중이 높음
- 2013~14년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200만원 이상 임금 비율이 늘어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의 200만원 이상 임금 비율 증가폭(29.4%p)은 전국(37.1%p)과 비수도권(31.4%p)을 하회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지역별 · 임금수준별 종사비중(2019년)¹⁾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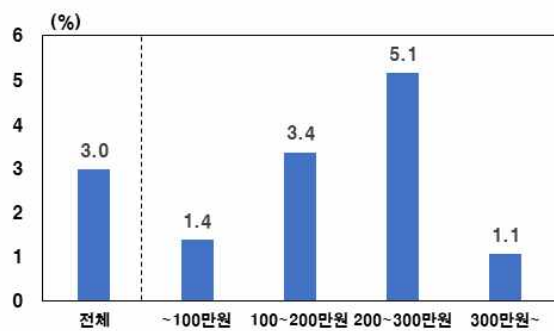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
전국	5.1	(0.2)	27.2	(-37.3)	51.3	(26.3)	16.3	(10.8)	100.0
수도권	5.4	(1.3)	25.5	(-41.8)	50.8	(28.2)	18.3	(12.3)	100.0
서울	8.1	(2.6)	24.6	(-36.2)	43.1	(19.6)	24.2	(14.0)	100.0
경기인천	4.2	(0.8)	25.9	(-44.8)	54.1	(32.0)	15.8	(12.0)	100.0
비수도권	4.8	(-1.7)	30.0	(-29.7)	52.3	(22.9)	13.0	(8.5)	100.0
부산울산경남	3.2	(-1.4)	23.1	(-31.3)	56.8	(23.3)	16.9	(9.4)	100.0
대전충남충북세종	3.8	(-1.0)	25.3	(-37.6)	56.2	(27.1)	14.7	(11.5)	100.0
대구경북	5.2	(-2.1)	29.1	(-27.3)	54.1	(20.4)	11.6	(9.0)	100.0
광주전남전북	8.3	(-2.1)	42.7	(-25.1)	43.0	(22.5)	6.0	(4.7)	100.0
강원제주	5.6	(-7.5)	48.5	(-19.0)	35.9	(21.9)	10.1	(4.6)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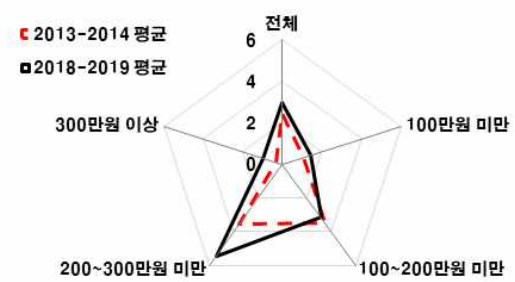
○ 2019년중 임금수준별 대구경북지역 총 임금근로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00만원이 5.1%로 가장 높고, 100~200만원(3.4%), 100만원 미만(1.4%), 300만원 이상(1.1%) 등의 순임

— 지난 2013~2014년에 비해 2018~19년중 국내 임금근로자 대비 임금수준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0~300만원(3.6% → 5.4%), 300만원 이상(0.3% → 1.0%)을 중심으로 증가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국내 임금근로자 비중(2019년)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국내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4**국적별·체류자격별 분포**

-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0.1%), 한국계 중국인(15.8%), 인도네시아(8.3%), 우즈베키스탄(7.5%)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
 - 산업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은 48.3%가 광·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농림어업(27.1%) 및 도소매·음식·숙박업(23.4%)에도 약 절반 수준이 종사하였으나, 한국계 중국인은 60.2%가 광·제조업에 근무하고 농림어업 비중은 낮은 편
 - 한편 중국 출신 근로자들은 약 절반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였으며, 북미, 일본 출신 근로자들 대부분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종사
- ◆ 한편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은 비전문 취업(E-9) 39.5%, 재외동포(F-4) 16.7%, 방문취업(H-2) 10.5% 순
 - 지난 2013~14년에 비해 비전문취업(E-9)의 비중(57.5% → 39.5%)이 줄어든 반면, 재외동포(F-4)(6.2% → 16.7%)와 유학생(D-2, D-4~1,7)(1.5% → 5.4%) 비중은 크게 증가
 - 반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E-1~E-7)의 비중(7.3% → 5.4%)은 지난 2013~14년에 비해 감소

가. 국적별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0.1%), 한국계 중국인(15.8%), 인도네시아(8.3%), 우즈베키스탄(7.5%) 등이 절반 수준을 차지
 - 지난 2013~14년과 비교하면 중국(2013~14년 7.3% → 2019년 3.8%)과 인도네시아(13.0% → 8.3%) 비중이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 네팔 등 기타 아시아국가(22.0% → 25.6%)와 유럽(0.9% → 5.7%) 출신 근로자 비중은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기타 아시아국가(30.2%) 및 인도네시아(10.5%) 출신 근로자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여성은 베트남(26.0%), 중국(9.6%) 및 미국·캐나다(7.6%)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국적별 비중(2019년)¹⁾

(%, %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아시아	89.5	(-4.6)	91.3	(-4.3)	84.7	(-5.6)
한국계 중국	15.8	(-1.1)	15.5	(-1.1)	19.9	(-0.9)
중국	3.8	(-3.5)	2.4	(-3.1)	9.6	(-4.3)
베트남	20.1	(0.5)	18.0	(0.2)	26.0	(1.7)
우즈베키스탄	7.5	(2.4)	8.1	(1.9)	8.5	(4.0)
필리핀	4.4	(-1.3)	3.3	(-1.0)	5.1	(-2.0)
인도네시아	8.3	(-4.7)	10.5	(-4.2)	1.4	(-6.6)
일본	0.4	(-0.5)	0.2	(-0.2)	3.0	(-1.5)
태국	1.9	(-0.6)	1.5	(-0.5)	0.7	(-0.9)
몽골	1.6	(0.6)	1.6	(1.2)	2.9	(-1.2)
기타 아시아	25.6	(3.6)	30.2	(2.6)	7.6	(6.1)
아시아 이외	10.5	(4.6)	8.7	(4.3)	15.3	(5.6)
미국·캐나다	3.3	(-0.5)	2.1	(-1.2)	7.6	(1.6)
유럽	5.7	(4.8)	5.4	(4.9)	6.0	(4.4)
오세아니아	0.2	(0.0)	0.2	(0.2)	0.4	(-0.6)
기타	1.4	(0.3)	1.0	(0.4)	1.3	(0.2)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산업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은 48.3%가 광·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농림어업(27.1%) 및 도소매·음식·숙박업(23.4%)에도 약 절반 수준이 종사하였으나, 한국계 중국인은 60.2%가 광·제조업에 근무하고 농림어업 비중은 낮은 편
 -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및 태국 출신 근로자의 광·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았고, 농림어업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중국 출신 근로자들은 약 절반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였으며 북미, 일본 출신 근로자들 대부분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종사
 - 북미, 오세아니아 등은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나, 유럽 출신 근로자들의 73.3%는 광·제조업에 종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국적별·산업별 비중(2019년)¹⁾

(%, %p)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합
전체	12.1 (5.9)	62.0 (-8.8)	3.1 (-0.3)	11.6 (4.0)	0.6 (0.6)	10.7 (-1.3)	100.0
아시아	11.7 (5.2)	62.4 (-12.7)	3.0 (-0.6)	10.6 (2.7)	0.6 (0.6)	11.7 (4.8)	100.0
한국계 중국	3.9 (-2.5)	60.2 (-14.0)	10.2 (8.1)	13.3 (3.6)	0.0 (0.0)	12.4 (4.9)	100.0
중국	11.1 (0.0)	21.6 (-16.1)	1.9 (-0.1)	47.2 (16.8)	0.0 (0.0)	18.3 (-0.5)	100.0
베트남	27.1 (11.0)	48.3 (-18.1)	0.6 (-6.5)	23.4 (18.7)	0.6 (0.6)	0.0 (-5.5)	100.0
우즈베키스탄	0.0 (0.0)	95.5 (-3.6)	0.0 (0.0)	1.0 (1.0)	2.3 (2.3)	1.2 (0.2)	100.0
필리핀	0.0 (0.0)	69.1 (4.8)	0.0 (-14.6)	14.3 (7.7)	0.0 (0.0)	16.6 (2.1)	100.0
인도네시아	23.4 (20.7)	73.1 (-24.2)	0.0 (0.0)	0.0 (0.0)	0.0 (0.0)	3.5 (3.5)	100.0
일본	0.0 (-36.3)	13.8 (-30.1)	0.0 (0.0)	16.7 (10.1)	0.0 (0.0)	69.5 (56.3)	100.0
태국	8.8 (8.8)	86.7 (-13.3)	0.0 (0.0)	4.5 (4.5)	0.0 (0.0)	0.0 (0.0)	100.0
몽골	0.0 (0.0)	28.3 (-48.7)	34.1 (34.1)	13.2 (13.2)	0.0 (0.0)	24.4 (1.4)	100.0
기타 아시아	13.6 (10.9)	74.3 (-7.4)	3.0 (2.2)	2.6 (-7.3)	0.3 (0.3)	6.2 (1.3)	100.0
아시아 이외	0.0 (-1.8)	42.1 (40.3)	0.0 (-1.9)	11.4 (9.9)	2.3 (1.8)	44.2 (-48.3)	100.0
미국·캐나다	0.0 (-2.7)	0.0 (-1.1)	0.0 (-0.7)	9.5 (7.7)	0.0 (-0.7)	90.5 (-2.4)	100.0
유럽	0.0 (0.0)	73.3 (65.5)	0.0 (0.0)	7.3 (4.8)	0.0 (0.0)	19.4 (-70.4)	100.0
오세아니아	0.0 (0.0)	0.0 (0.0)	0.0 (0.0)	71.0 (71.0)	0.0 (0.0)	29.0 (-71.0)	100.0
기타	0.0 (0.0)	20.3 (20.3)	0.0 (-11.9)	25.1 (25.1)	17.0 (17.0)	37.6 (-50.5)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출신 외국인 취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14년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

○ 한편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북미, 일본, 중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미국·캐나다 22.3%, 일본 16.7%, 중국 9.9%)이 높았으며, 특히 중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 비중(13.3%)도 높았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국적별·종사상 지위별 비중(2019년)¹⁾

(%, %p)

	임금		(상용)		(임시일용)		비임금		합
		(%p)		(%p)		(%p)		(%p)	
전체	96.4	(1.1)	69.8	(-8.0)	26.6	(9.1)	3.6	(-1.1)	100.0
아시아	96.9	(1.5)	70.2	(-7.7)	26.7	(9.1)	3.1	(-1.5)	100.0
한국계 중국	98.1	(1.0)	62.6	(-8.1)	35.4	(9.2)	1.9	(-1.0)	100.0
중국	76.8	(-16.5)	45.3	(-8.4)	31.5	(-8.0)	23.2	(16.5)	100.0
베트남	96.2	(0.6)	53.3	(-13.6)	42.9	(14.2)	3.8	(-0.6)	100.0
우즈베키스탄	100.0	(0.0)	78.1	(-16.4)	21.9	(16.4)	0.0	(0.0)	100.0
필리핀	95.8	(-2.8)	64.5	(-21.9)	31.3	(19.1)	4.2	(2.8)	100.0
인도네시아	100.0	(0.0)	91.0	(-6.2)	9.0	(6.2)	0.0	(0.0)	100.0
일본	83.3	(19.6)	83.3	(47.4)	0.0	(-27.9)	16.7	(-19.6)	100.0
태국	95.5	(-4.5)	71.6	(-28.4)	23.9	(23.9)	4.5	(4.5)	100.0
몽골	100.0	(0.0)	47.2	(-28.0)	52.8	(28.0)	0.0	(0.0)	100.0
기타 아시아	98.0	(7.4)	84.9	(0.4)	13.1	(7.0)	2.0	(-7.4)	100.0
아시아 이외	92.2	(-1.3)	66.4	(-10.0)	25.9	(8.7)	7.8	(1.3)	100.0
미국·캐나다	77.7	(-14.5)	55.8	(-24.4)	21.9	(9.9)	22.3	(14.5)	100.0
유럽	98.5	(1.0)	75.5	(16.4)	23.0	(-15.4)	1.5	(-1.0)	100.0
오세아니아	100.0	(0.0)	71.0	(-29.0)	29.0	(29.0)	0.0	(0.0)	100.0
기타	100.0	(4.6)	53.6	(-14.6)	46.4	(19.2)	0.0	(-4.6)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임금수준별로는 2013~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200만원 이상 임금 비율이 늘어난 가운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및 몽골 출신 임금근로자의 200만원 이하 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국적별·임금수준별 비중(2019년)¹⁾

(%, %p)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
전체	5.2	(-2.1)	29.1	(-27.3)	54.1	(20.4)	11.6	(9.0)	100.0
아시아	5.4	(-2.3)	30.8	(-28.6)	52.2	(20.4)	11.6	(10.6)	100.0
한국계 중국	3.3	(-2.0)	24.7	(-36.9)	57.1	(26.0)	14.9	(12.8)	100.0
중국	16.0	(-11.5)	35.7	(-30.4)	44.8	(38.4)	3.5	(3.5)	100.0
베트남	12.0	(-3.0)	47.6	(-3.6)	35.2	(1.3)	5.2	(5.2)	100.0
우즈베키스탄	1.3	(0.4)	26.0	(-37.2)	60.3	(24.4)	12.4	(12.4)	100.0
필리핀	3.2	(-0.2)	47.2	(-16.8)	37.7	(5.2)	11.9	(11.9)	100.0
인도네시아	1.9	(1.7)	29.8	(-33.3)	51.5	(14.8)	16.8	(16.8)	100.0
일본	0.0	(-18.4)	84.8	(84.8)	0.0	(-18.9)	15.2	(-47.5)	100.0
태국	0.0	(0.0)	34.7	(-38.8)	61.3	(34.7)	4.0	(4.0)	100.0
몽골	46.5	(23.6)	38.0	(-39.0)	15.4	(15.4)	0.0	(0.0)	100.0
기타 아시아	0.9	(-0.2)	18.6	(-43.1)	65.8	(29.5)	14.6	(13.8)	100.0
아시아 이외	3.7	(3.0)	13.5	(5.8)	71.1	(7.8)	11.7	(-16.6)	100.0
미국·캐나다	0.0	(-1.1)	12.2	(4.2)	56.3	(-7.7)	31.5	(4.7)	100.0
유럽	3.8	(3.8)	14.9	(6.9)	80.2	(6.3)	1.2	(-17.0)	100.0
오세아니아	0.0	(0.0)	29.0	(29.0)	0.0	(-50.0)	71.0	(21.0)	100.0
기타	10.9	(10.9)	8.2	(-3.7)	71.0	(16.9)	9.9	(-24.0)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나. 체류자격

- 2019년 현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은 비전문취업(E-9) 39.5%, 재외동포(F-4) 16.7%, 방문취업(H-2) 10.5% 순
 - 지난 2013~14년에 비해 비전문취업(E-9)의 비중(57.5% → 39.5%)이 줄어든 반면, 재외동포(F-4)(6.2% → 16.7%)와 유학생(D-2, D-4~1,7)(1.5% → 5.4%) 비중은 크게 증가

— 이는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국내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국제화를 위한 지역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 등에 주로 기인

○ 반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E-1~E-7)의 비중(7.3% → 5.4%)은 지난 2013~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2019년중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이 회화지도(E-2), 예술홍행(E-6) 등 서비스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 (E-7) 종사인력의 비중은 35.9%에 불과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도입직종은 85개 직종(471개 세부직업)으로 구성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2019년)

(%, %p)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합
전체	39.5 (-18.0)	10.5 (0.5)	5.4 (-1.9)	5.4 (3.9)	16.7 (10.5)	4.2 (-0.1)	9.8 (0.9)	8.6 (4.2)	100.0
남성	50.2 (-18.2)	10.3 (0.3)	4.2 (0.0)	3.2 (1.9)	16.0 (9.7)	2.6 (-1.6)	2.9 (1.2)	10.6 (6.7)	100.0
여성	7.2 (-18.7)	10.9 (1.2)	8.9 (-7.1)	12.0 (10.0)	18.8 (12.8)	8.8 (4.2)	30.7 (0.8)	2.6 (-3.2)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전국과 비교시에도, 지난 2013~14년 대비 대구경북지역의 비전문취업(E-9) 비중 감소폭과 재외동포(F-4) 및 유학생(D-2, D-4~1,7) 비중 증가폭은 두드러짐

— 한편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전문인력(E-1~E-7) 비중(5.4%)은 전국(4.4%)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비수도권(5.8%)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전문인력에서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종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35.9%)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국(55.1%) 및 비수도권(51.6%)을 하회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2019년)

(% , %p)

	비전문 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합
전국	30.2 (-2.2)	18.3 (-6.3)	4.4 (-1.4)	2.7 (1.5)	22.5 (8.3)	8.9 (0.9)	6.5 (-1.1)	6.4 (0.3)	100.0
수도권	23.6 (0.5)	22.8 (-8.0)	3.7 (-1.6)	1.7 (1.1)	26.1 (8.4)	11.1 (1.1)	5.6 (-1.5)	5.4 (0.0)	100.0
서울	0.8 (-0.3)	29.5 (-9.0)	6.0 (-2.0)	3.2 (2.2)	32.3 (10.0)	14.2 (0.4)	5.4 (-2.0)	8.6 (0.7)	100.0
경기인천	33.8 (-1.3)	19.9 (-6.8)	2.6 (-1.2)	1.1 (0.7)	23.3 (8.2)	9.8 (1.9)	5.7 (-1.3)	3.9 (-0.1)	100.0
비수도권	41.3 (-7.3)	10.7 (-3.1)	5.8 (-1.0)	4.2 (2.1)	16.6 (8.3)	5.1 (0.7)	8.1 (-0.4)	8.2 (0.8)	100.0
부산울산경남	45.9 (-9.3)	8.3 (-2.5)	5.9 (0.6)	2.5 (1.5)	16.6 (9.1)	5.4 (1.5)	7.1 (0.6)	8.4 (-1.5)	100.0
대전충남충북세종	39.2 (-2.0)	15.2 (-8.9)	3.1 (-3.0)	2.9 (1.1)	21.8 (8.8)	5.0 (0.1)	5.9 (-0.3)	6.7 (4.2)	100.0
대구경북	39.5 (-18.0)	10.5 (0.5)	5.4 (-1.9)	5.4 (3.9)	16.7 (10.5)	4.2 (-0.1)	9.8 (0.9)	8.6 (4.2)	100.0
광주전남전북	45.0 (2.6)	9.6 (-1.5)	4.8 (-3.3)	7.0 (2.7)	9.9 (3.7)	5.2 (1.1)	11.6 (-2.9)	7.0 (-2.5)	100.0
강원제주	28.2 (-1.0)	5.2 (-0.7)	19.0 (4.1)	7.0 (0.8)	11.0 (5.9)	6.0 (-0.2)	8.1 (-5.0)	15.5 (-3.8)	100.0

주: 1) ()내는 2013~14년 대비 비율 변동폭(%p)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한편 체류자격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문인력(E-1~E-7)과 비전문취업(E-9)은 실업자가 거의 없었던 반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생(D-2, D-4~1,7), 결혼이민(F-6)의 경우 지난 2013년에 비해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며 외국인 전체 실업률 상승(2013년 1.0% → 2020년 8.0%)을 유발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별 실업률

(% , %p)

	전체	비전문 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2013년(A)	1.0	0.0	4.5	0.0	0.0	1.1	7.1	2.6	0.0
2019년	4.5	0.0	3.1	0.0	23.9	2.6	11.1	8.1	9.0
2020년(B)	8.0	0.3	13.3	0.0	21.6	11.3	6.4	10.2	15.8
B-A	7.0	0.3	8.8	0.0	21.6	10.2	-0.6	7.6	15.8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또한 체류자격·산업별 분포에 있어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경우 광·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유학생(D-2, D-4~1,7)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문인력(E-1~E-7)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대부분 종사

— 특히 광·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E-1~E-7) 비중은 12.3%에 불과하여 전국(12.7%) 및 비수도권*(15.2%)을 하회

* 강원제주지역 제외시 20.4%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산업별 종사비중(2019년)

(%)

	전체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2.1	13.2	2.1	0.0	0.0	2.4	4.0	4.4	65.9
광·제조업	62.0	82.7	73.0	12.3	1.8	75.3	43.0	50.1	19.1
건설업	3.1	1.7	6.6	0.0	7.8	3.6	8.4	2.7	1.4
도소매·음식·숙박업	11.6	1.0	10.3	16.9	75.6	8.9	11.5	26.8	5.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6	0.0	0.0	2.6	3.4	0.4	0.0	0.0	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7	1.5	8.0	68.2	11.5	9.3	33.1	16.1	5.5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체류자격·직업별 분포에 있어서는 산업별 분포와 유사하게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경우 기능·기계조작·조립 비중이 높은 반면, 유학생(D-2, D-4~1,7)의 경우 서비스·판매 비중이 높았으며 전문인력(E-1~E-7)은 관리자·전문가로 대부분 종사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직업별 종사비중(2019년)

(%)

	전체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자·전문가	8.4	0.0	0.0	78.4	10.4	6.3	19.5	13.2	5.0
사무	0.7	0.0	0.0	2.4	0.0	0.8	2.2	1.7	1.7
서비스·판매	7.7	0.0	7.5	8.6	53.9	5.4	16.3	16.5	4.1
농림어업숙련	10.0	9.4	2.1	0.0	0.0	1.0	0.0	4.4	64.1
기능·기계조작·조립	55.1	71.5	71.5	10.6	0.0	70.8	49.1	38.2	14.7
단순노무	18.1	19.1	18.9	0.0	35.7	15.7	12.9	26.1	10.5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체류자격·종사상 지위별 분포에 있어서는

비전문취업(E-9), 전문인력(E-1~E-7)과 재외동포(F-4)의 상용직 비중이 높은 반면, 유학생(D-2, D-4~1,7),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았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종사상 지위별 비중(2019년)

(%)

	전체	비전문 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	96.4	100.0	100.0	100.0	100.0	95.9	81.6	81.7	95.6
(상용)	69.8	91.9	61.1	84.9	6.8	72.5	53.1	38.9	47.0
(임시일용)	26.6	8.1	38.9	15.1	93.2	23.3	28.5	42.8	48.5
비임금	3.6	0.0	0.0	0.0	0.0	4.1	18.4	18.3	4.4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한편 체류자격·임금수준별 분포에 있어서는 종사상 지위 분포와 유사하게

전문인력(E-1~E-7), 비전문취업(E-9)과 재외동포(F-4)는 200만원 이상 임금 비중이 높은 반면, 유학생(D-2, D-4~1,7), 결혼이민(F-6)의 경우 200만원 미만 임금 비중이 높았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체류자격·임금수준별 비중(2019년)

(%)

	전체	비전문 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	5.2	0.0	2.1	0.0	61.8	1.0	2.9	8.7	6.0
100~200만원 미만	29.1	19.0	33.0	12.9	35.6	21.2	23.0	53.7	72.7
200~300만원 미만	54.1	66.9	53.4	62.3	2.7	65.9	54.7	33.4	19.1
300만원 이상	11.6	14.1	11.4	24.8	0.0	11.8	19.4	4.2	2.2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체류자격·직무수준별 분포에 있어서는

전문인력(E-1~E-7)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의 외국인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운데, 특히 유학생(D-2, D-4~1,7)과 결혼이민(F-6)의 1수준(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종사 비중이 높았음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체류자격·직무수준별 비중¹⁾(2019년)

(%)

	전체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기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수준	62.3	64.8	65.0	1.9	86.9	61.4	40.7	71.7	71.6
2수준	26.2	32.7	29.9	15.2	4.5	26.3	38.4	15.4	17.1
3수준	6.0	2.2	4.0	28.0	6.6	7.9	11.0	3.8	8.2
4수준	5.5	0.2	1.1	54.9	2.0	4.4	9.9	9.1	3.1

주: 1) 1수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2수준: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3수준: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4수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참 고 문 헌

- 고민지,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배경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18
- 김민정, “대구경북지역 경제내 부문별 성장불균형 점검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1
- 법무부,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보도자료(2021.2.15)
- 법무부,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보도자료(2021.4.29)
- 법무부, “인구감소시대, 외국인 역량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보도자료(2021.7.7)
- 법무부·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보도자료(2021.4.13)
- 성상현, “中企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수급 다변화 등 제안”, KBIZ 정책브리프 Vol 11, 중소기업중앙회, 2021
- 엄진영 외,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보고 R9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이규용,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월간 노동리뷰 2007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이규용, “경제·사회적 편익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정책 방향”, 월간 노동리뷰 2017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7
- 이규용·김현미·김철효·주수인,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연구보고서 2019-13, 한국노동연구원, 2019
- 이철희·정선영, “국내 외국인력 취업 현황 및 노동 수급에 대한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15-13호, 한국은행, 2015
- 이혜진, “경인지역 외국인 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경기본부, 2019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 애로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018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외국인력 입국지연으로 인한 생산현장 문제 조사결과”, KBIZ 정책브리프 Vol 5, 중소기업중앙회, 2020
- 최기산·박규리,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7-34호, 한국은행, 2017